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정혜정
JUNG Haejung

황경현
HWANG Gyunghyun

황문정
HWANG Moonjung

델핀 푸이에
Delphine POUILLE

*5

2017 Platform Critique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인천아트플랫폼이 2017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에 대한 비평문과 인터뷰를 담은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2017 Platform Critique Weekly)’를 발간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시각,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연구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6개국 28팀 4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성과 개별작업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개념의 예술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예술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Platform Critique Weekly)’는 이들의 작품을 해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위클리에는 예술가의 창작 발전과 예술적 지평의 확장을 위해 진행한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비평문과 작가 인터뷰, 대표작품 이미지, 작가 프로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 안에서 ‘예술의 유효함’을 증명하는 비평가들의 비평문은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2017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예술가, 연구자의 비평과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합니다.

- ◆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는 11월 2일(목)부터 12월 14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웹진을 통해 발간하며, 2018년 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보고 도록으로 출간됩니다.
- ◆ 인천아트플랫폼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은 입주작가의 창작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며 이론적 멘토이자 비평가, 전문가를 연결해 작업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주 연구자와 입주 기간이 3개월인 국외 작가는 인터뷰로 대신하였습니다.
- ◆ 입주작가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질문은 작품 전반과 주요 작품에 대한 설명, 작가의 배경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작가의 변을 더했습니다. 작가가 의도했던 작업의 계기, 의미, 내용을 드러내도록 질문을 구성하였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작가의 언어’를 가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 수록된 작가의 작품 이미지는 비평문과 인터뷰에 언급된 작품, 최근 작품, 주요 작품을 기준으로 삼아 수록하였습니다.



정현.

미술비평가, 인하대학교 교수

걷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간은 걷기를 시작한 뒤 죽기 전까지 걷기를 실천한다. 그저 이동을 위한 걷기가 있는가 하면, 건강을 위한 걷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의 서성거림, 세상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를 걷는 경우도 있다. 걷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기술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걷기의 의미는 달라진다. 젠더의 측면으로 보면 공간은 성별과 성적체성의 차이에 따라 구별되고 제한된다. 하위주체는 주류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며 그들이 공공장소를 점유하는 방식, 즉 거리에서 확보하기는 그 자체로 곧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걷기의 실천이 된다. 다큐멘터리 *파리는 불타고 있다*는 게이, 트랜스젠더, 유색인종과 같은 하위주체의 드래그는 전복적인 걷기를 대표한다. 세대 간 차이도 존재한다. 속도나 몸짓의 차이도 있지만 각 세대가 점유하는 공간의 지리학적 특성과 공간을 사용하는 모습도 각기 다르다. 직업에 따른 차이도 눈여겨 볼만하다. 택배기사의 걷기와 건강을 위한 걷기는 목적만큼이나 결과와 만족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쇼핑을 위한 매우 사적인 걷기와 군사행렬의 걷기 사이의 차이는 개인의 욕망과 자율성의 유무뿐만 아니라 걷기와 사회체제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를 엿보게 해 준다. 국제상황주의를 이끈 기 드보르는 상품자본주의가 장악한 대도시의 삶을 깨우기 위하여 새로운 만보의 방식을 제안한다. 표류와 우회가 바로 이 새로운 걷기의 방식이다.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기, 일부러 멀리 되돌아가기와 같은 전략은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사회체제에 작은 균열을 가하기 위함이다. 일상을 연구한 철학자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는 “도시는 언어, 가능성의 저장소이며, 걷기는 그 언어를 말하는 행동, 그런 가능성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레베카 솔닛, *걷기의 역사*, 352쪽) 걷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가능성을 활성화시키는 적극적인 참여이다. 그러므로 예술가의 걷기는 아름다운 몸짓 이전에 삶을 감각하는 절실한 행위로 예술적 관념을 앞선다. 바깥에서의 걷기는 살아있음을 알리는 본질적인 존재의 몸짓이자 언어이다.

JUNG Hyun.
Art Critic Professor, Inha University

Walking is not a special skill. Except for special cases, most humans begin to walk and continue walking until death. While there is walking for movement, there is walking for health and a person waiting for someone with who he falls in love. There is even walking on the street to tell about social irrationalities to the world. Walking is a skill that is fairly given to everyone, but its meaning differs depending on its purpose. In terms of gender, a space is distinguished and limited according to gender and gender identity. Subordinate subjects stay on the periphery of mainstream society and their walking on the street becomes a resistance to existing orders. In a documentary Paris is burning, subordinate subjects such as gay, transgender and people of color represent subversive walking. For walking, there exists a gap between generations. While speed or gesture differs, there is also differences in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a space they occupy and how they use the space. A difference depending on occupation is worthy of attention. A courier's walking and a person's walking for health have a different purpose, result and satisfaction.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walking for shopping and military parade shows whether a person's desire and autonomy are given and it also tells how closely walking and social systems are related. Guy Debord, who led international situationism, suggested a new way of walking to awaken a life in mega cities, which is controlled by capitalism. Drift and detour are the new way. Strategies such as wandering without any purpose and returning from far on purpose are to crack social systems, which emphasize economic aspects alone. Philosopher Michel de Certeau, who studied a daily life, believes that "a city is a storing place for languages and potentials and walking is an act of speaking the languages and an act of selecting the potentials." (*A history of walking* by Rebecca Solnit, page 352) Walking is an active participation to vitalize the potentials of spaces, where we live. Therefore, an artist's walking is a desperate act of sensing her life rather than artistic concept. Walking outside is a language and a gesture of essential existence to inform that it is alive.

걷기가 등장한다. 지난 몇 해 동안 그는 여러 레지던시를 옮겨 다니면서 자신이 운명적으로 속한 세계와 자신이 선택한 예술의 세계를 잇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스킨스쿠버를 하고 강에서는 배를 탄다. 걷기의 과정은 드로잉, 자수, 지도, 영상, 설치, 오브제로 제작되고 책의 형태로도 출간된다. 그에게 걷기는 자신과 바깥을 연결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매체와 같다. 현대도시란 속도전에 임한 전사들의 합숙소와 다르지 않다. 더 빠른 길과 더 넓은 길이 세워지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노선도로도 기획된 곳이 되어간다. 도시가 감각을 잃어가는 속도만큼 그 표면은 화려한 빛으로 명멸한다. 도시를 걸어서 가로지르는 건 정보로는 제시할 수 없는 '감각적 인식의 과정'이다. 그의 초기 퍼포먼스 *바람이 머무는 곳, 이방인의 집*(2011)은 이태원 지역을 72시간 동안 배회하면서 밤낮의 차이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도시의 이중성을 강조한다. 당시에는 이태원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언어를 이용하여 개념화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움직이는 오브제는 이동수단이자 행인들과 만나는 안식처의 기능을 가졌다. 덕분에 작가는 손금을 읽는 점쟁이처럼 행인을 만나 손의 윤곽과 손금을 그리면서 우연한 관계를 형성한다. 타인의 손을 만진다는 감각적 경험은 손금이라는 운명적 선으로 기호화되는데, 퍼포먼스의 설정이 실제 행위를 장악해버린 인상을 주는 점이 아쉬웠다. *점의 기행*(2013)는 정체성 작업의 성격과 형식의 바탕이 다져진 프로젝트로 자신의 집에서 출발하여 작업실에 이르는 88km의 거리를 3박 4일 동안의 걷기 과정을 기록한다. 작가는 습관적으로 지나치는 길을 주목했다. 운송수단을 버리고 걷기를 선택하자 거리는 일정하지만 시간의 진폭은 길게 늘어났다. 더 많은 소리, 공기, 자연, 사람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이야기가 늘어진 시간의 주름 사이로 스며든다. 축지법이 공간을 접는 술법이라면, 걷기는 시간의 보이지 않는 주름을 펼치는 술법일 것이다. 영상 작업은 걷기 과정 중 우연히 목격한 사람들의 대화를 촬영한 후 실제 소리를 지우고 그 위에 성우들의 인위적인 목소리를 다시 입혀 실재를 허구처럼 낯설게 만든 작업이다. 감정을 지운 건조한 성우풍의 내레이션을 일상적 장면을 특별한 사건처럼 묘사한다. 이후 대부분 영상작업은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제작된다. 현실의 인물은 이 목소리로 새로운 허구의 인물로 변신한다. 작가는 현실의 재현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대신 기록된 현실 속에 허구성을 삽입하여 일상을 연극 무대화 한다. 일상을 드라마로 전유하자 화면 속 등장인물, 소음, 배경까지도 의미를 부여받는다.

several years, she has moved to several residences and created works that connect the world to which she belongs and the world of art she chose. She goes scuba diving in the sea and ride a boat on the river. The process of walking is recorded as drawing, embroidery, map, video, installment, objects and even published books. For her, walking is a tool to connect herself and the world and a medium to create a new world. A modern city is like a training camp for warriors who fight in a speed war. Faster and broader roads are built and a route map is designed to go faster. As fast as a city loses its senses, its surface is replaced with splendid light. Walking across a city is 'a process of sensuous recognition', which can't be presented with information. In her early performance *Where the wind stay, the other's home* (2011), she wonders around Itaewon area for 72 hours and emphasizes the duplicity of the city, which changes itself according to changes of night and day. At that time, it seemed that she has a strong will to use a language to conceptualize unique characteristics of an area, Itaewon. Moving objects is a means of transportation and has a function as a refugee, where she encounters passers-by. Thanks to the objects, the artist encounters passers-by and reading their palms, establishing accidental ties. A Sensuous experience of touching others' hands is symbolized with fatalistic lines, a palm's lines. An impression is given that the setting for her performance controls the real act. *Spot's journey* (2013) is a project which absorbs the artist work style and format's background and a record of walking a distance of 88 kilometers from her workroom for 3 nights and 4 days. The artist paid attention to roads that she unconsciously used to pass by. Throwing away means of transportation, she chose to walk. Thought distance was consistent, the time took longer. More sounds, air, nature, people and various kinds of stories permeate time's wrinkles. If the magic method of shortening distances, walking would be a way to smooth the invisible wrinkles of time. Video work records conversations with people she encounters while walking and erase the real voices and puts on artificial voices of dubbing artists in order to make reality a figment. Narrations by emotionless voices of the dubbing artists describe daily scenes as special occasions. Most video work is done in this way. Real people are reborn as fictitious figures. The artist seems to have no interest in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stead, she adds fictiveness to recorded reality and turn it into a theater stage. Once a daily life is replaced with a drama, the characters, noise and even backgrounds are given.

현실과 허구의 혼합

〈랑랑〉(2014, 정혜정X안성석)은 나무배 호락질호를 타고 한강 도하를 시도한 작업이다. 직접 제작한 배를 타고 한강을 유람하겠다는 생각은 자신이 한강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었다. 북한강 방향에서 강줄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여태껏 본 한강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한강의 사용법은 제한적이다. 유람선을 타거나 공원에서 피크닉과 레저를 즐기는 게 고작이다. 정혜정은 한강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기 위하여 배를 몰고 한강 안에서 그곳을 다시 그리고 기록했다. 걷기는 대상을 관조하는 미학적 태도와 달리 관조의 대상 속으로 침입하는 행위이다. 〈랑랑〉은 작업과 노동, 예술과 일상, 탐험과 놀이가 혼합된 걷기의 실천이었다. 이후 보트에 손님을 싣고 1시간가량 한강 유람을 하는 〈반짝, 풍덩, 선과, 을 잇는, 한_강 투어〉(2015)는 관광과 공연을 결합한 이중적 형태의 작업이다. 작가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짧은 여정 중에 공연과 퍼포먼스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손님은 퍼포먼스의 참여자가 되고 공연의 관객이 된다. 지난 작업에서 보잘것없는 일상을 영상과 내레이션을 입혀 의미 있는 행위로 둔갑시켰다면, 이번에는 일상에서 비일상적인 사건을 삽입하여 강바람과 풍경, 프리포즈와 같은 전형적인 한강유람의 경험을 해체한다. 이를 대신하여 갑자기 구조를 요청하는 퍼포머가 등장하여 손님에게 의외의 요구를 제안한다. 강둑에서는 소수의 손님을 위한 작은 공연이 열린다. 일련의 해프닝들은 획일화된 한강 유람의 클리셰를 사적이고 특별한 경험으로 대체한다. 관광의 형식을 차용하여 관습적인 기억을 새로운 경험으로 뒤바꾸는 작업은 운순하게 전복적이다. 한편 이 작업은 임민옥의 한강 유람선 퍼포먼스 〈SOS-Adoptive Dissensus〉(2009)을 대안적으로 재해석한 오마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정혜정의 초기작이 수행성과 그 과정에 관한 충실한 보고에 집중했다면, 〈랑랑〉 이후 근작들은 다소 직접적이었던 이전 작업과 비교하면 인용과 참조의 디테일이 풍부해지면서 복합적인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게 느껴진다.

가장 최근 전시 〈서울 2016년 겨울〉(2017)은 60년대 인간소의 현상을 냉정하게 관찰한 김승옥의 소설을 2016년의 시점에서 재조명한 영상과 광화문 광장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한 설치작업으로 이뤄졌다. 영상작업 〈서울 2016년 겨울〉(2017)은 원소설의 배경인 종로를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옮긴 후 소설 속 등장인물을 차용한 세 명의 인물이 역시 등장한다. 겨울 인간, 종이 인간, 그리고 투명 인간은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세 명의 젊은이다. 정혜정은 실제로 깡통 옷을 입고 집회 현장에서 걷기를 수행했다. 세 인물은 광장을 배회하다 우연히 만난다. 일상이 된 집회 장면과 허구를 혼합하자 현실은 더 초현실적으로 과장되고 허구의 인물들은 위태로운 개인의 나약한 존재를 드러낸다. 등장인물들이 경험한 광장은 심리 지리학적 지형도로 재구성된다. 이것은 1964년 소설의 시공간과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의 기억을

A mix of reality and fiction

WAVE WAVE (2014, JUNG Haejung & AHN Sungseok) is a work about a process of crossing Han River on a boat named Horakjil. She began to think of making a boat and crossing the river when she realized that she knows nothing about Han River. While she was riding the course of Bukhangang and going down to the south, she saw different aspects of Han River. The number of ways to enjoy Han River is limited; going aboard a cruise ship or enjoying picnic and leisure in the park. In order to have an active experience, she rode a boat on Han River again and drew and recorded the river. Different from an esthetic attitude, which contemplates an object, walking is an act of trespassing an object for contemplation. WAVE WAVE (2014, JUNG Haejung & AHN Sungseok) is a practice of walking which consists of work and labor, art and daily life and exploration and play. Connecting flash, splash, line, Han_River Tour (2015) is a combination of tourism and performance, which goes sightseeing throughout Han River for an hour with passengers onboard. The artist plays a role as a tour guide and there are gigs and performances. In this process, passengers are participants in the performances and audience in gigs. In this work, she inserts unusual incidents to a daily life and dismantles typical experiences on Han River such as a breeze from the river, landscapes, proposal and so on. Instead, she asks passengers for unexpected demands when a performer asking for rescue appears. On the riverbank, a small gig is held. A series of unexpected incidents make a typical Han River tour private and special experiences. Borrowing from Tourism's styles and changing customary memories into new experiences are subversive. Meanwhile, her work even seems like a homage of *SOS-Adoptive Dissensus* (2009) by LIM Minwook. If JUNG Haejung's early works focused on an honest report of performativity and process, her latest works after WAVE WAVE (2014, JUNG Haejung & AHN Sungseok) is richer in quotation and reference and establishes a complex narrative.

One of her latest works *Seoul 2016 Winter* (2017) is based on a novel of KIM Seungwook, which dispassionately observes the phenomenon of human alienation. This work consists of a video, which shed new light on the phenomenon at the point of year 2016 and an installation, which symbolically reconstructed Gwanghwamun Square. In *Seoul 2016 Winter* (2017), the background of the original novel, Jongno, moves to a Gwanghwamun rally and there appear three characters, which are borrowed from the novel. Mirror human, paper human and invisible human are three young people, who are not recognized as human. In fact, the artist wears clothes made by cans and walks through the rally spot. The three characters wanders around the spot and encounter one another. When a rally scene which has become our daily life and a fiction are combined, reality becomes more supernaturally exaggerated and fictitious characters reveal their weakness. The square that the characters experienced are reconstructed as a psycho-geographic map, which is a mix of space and time of a novel in 1964 and memories in Gwanghwamun Square in 2016. While following the path,

버무린 지형도로 볼 수 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익명의 등장인물, 촛농으로 세워진 산, 차가운 눈과 뜨거운 불을 마주치게 된다. 전시 공간은 경험과 기억의 재현물이 아니라 배회자(관객)의 경험을 유도한다. 지난 금천 레지던스부터 정혜정의 작업은 바깥에서의 걷기 경험을 보고의 방식에서 체험의 방식으로 전환 중이다. 안과 밖의 변증법적 인과성에서 벗어나 안과 밖의 관습을 해체하려는 의지를 엿보게 한다. 최근 들어서는 예술고등학교 수업과정의 결과물을 작업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정혜정은 창작과 노동, 예술과 생계의 경계를 지우고 자신의 활동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를 작업 내부로 끌어드림으로써 걷기로 이어진 작은 지형도들을 묶는 지도책 제작자가 되어가는 중이다.

*

정현은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예술가의 정체성과 작업의 상관성」이란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술평론가, 독립 전시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문화연구를 접목한 미술비평을 통해 비평 활동을 배움의 방법으로 활용하며, 전시기획을 새로운 방식의 지식 생산이자 주요한 연구 활동으로 여긴다. 주요 저서로는 『글로벌 아트 마켓 크리틱』(미메시스, 2016, 공저), 『레디메이드 리얼리티: 박준범의 비디오 활용법』(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큐레토리얼 담론 실천』(현실문화, 2014, 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전시기획으로는 «그 다음 몸_담론, 실천, 재현으로서의 예술»(소마미술관, 2016), «시간의 밑줄_중앙일보 이미지로 본 한국의 50년: 1965-2015»(2015) 등이 있다. 현재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미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JUNG Hyun. Earned Ph.D from the University of Paris 1 with a disser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s identity and work, and works as an art critic and independent curator. By integrating art critique with cultural studies, he employs critique as a way of learning and deems curation as a new way of knowledge production and significant form of research. Important publications include *Global Art Market Critique* (Mimesis, 2016, co-author), *Ready made Reality: Junebum Park's Use of Videos* (Arts Council Korea, 2015) and *Practicing Curatorial Discourse* (Hyunsil Books, 2014, Co-author). Important exhibitions curated by Jung include *Body Matters* (Seoul Olympics Museum of Art, 2015) and *Underlining Time 50years of Korea Through Joongang Daily Images: 1965-2015* (2015). He is now professor at the Arts&Sports Department of Inha University.

나는 주로 몸의 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바깥 세계를 알아가기 위한 시도들을 작업에 투영한다. 흠어져있는 것들을 새로운 목록화의 범주로 넣어 다르게 보거나, 틈새 공간을 펼쳐 다른 시각으로 도시를 보게 하고, 기존의 목록을 해체시켜 새로운 읽기의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무한하게 변주되는 세상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나는 특정 분야나 소재를 한정 지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켜보고 다른 생각들과 연결 지어 보기도 하다가 작업화할 때는 이 내용과 적합하게 표현될 소재나 재료를 선별해 작업의 소재로 사용한다. 나의 작품은 처음의 아이디어가 결과물로 바로 환원된다기보다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변화를 갖는 편이다. 한 작업을 시간을 두고 일상 속에서 체득하게 되는 경험, 지식과 연결 짓는다. 때로는 여러 갈래를 가지고 주제를 펼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다양한 레이어들을 갖고 여러 시점에서 읽힐 방법과 형식을 찾는 편이다. 우리의 삶이란 것도 여러 다른 측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만화경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랑랑(WaveWave)’이다. 2014년 동료작가인 안성석작가와 함께 호락질(스스로 농사를 짓다’라는 뜻의 순우리말) 호를 만들고 그 배를 타고 한강을 여행하였다. 서울에 살면서 매일 보지만 배경화면처럼 존재했던 한강이라는 닫힌 공간을 열어보고자 했다. 사진 기록, 드로잉, 지도제작, 상영회, 공연, 책 등으로 활동을 발표했었다.

한강은 도시 안에 있는 큰 자연이지만, 지하철 창문 바깥으로만 보았던 한강에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 한강은 실제 공간이 아니라 마치 이미지처럼만 느껴졌고 나는 그런 점에서 의문을 느껴왔다. 어느 날 동료작가인 안성석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를 만들어서 한번 한강에 가보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배 ‘호락질 호’는 그 자체로 작품이고,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 줄 매체이고, 휴식의 장소이자, 동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는 한강에서 많은

역사의 흔적들, 도시의 이면들, 틈새들, 동물들, 식물들, 사람들을 발견했고 도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작업의 핵심단어를 표현하자면 다른 시점으로 가는 통로? 웜홀(worm hole) 정도로 이야기 할수 있겠다.

레지던시 기간에는 세 작업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첫 번째 작업은 〈서울 2016년 겨울〉이다. 지난겨울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적 환난 속에서 개인으로써 어떻게 나와 도시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감상을 풀어본 작업으로,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을 참조하여 영상언어의 형식적 실험을 통해 영상과 설치작업을 하였다. 전시장 전체를 두 개의 대립적인 감각이 혼재하는 풍경으로 연출하였으며, 영상에서는 두개의 시간 축에서 도시가 어떻게 남아있고, 바뀌어있는지를 볼 수 있고, 미미한 개인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작업은 지난 7월 탈영역 우정국(서울)에서 개인전으로 발표했었다. 〈서울 2016년 겨울〉에서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 3명의 인물은 비교적 단순한 영상기법(투명, 납작, 반사)을 통해서 표현했다. 전시장에서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다리 위를 걸으며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데 관람객은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며 이동해야 한다. 이 작업은 나의 과거 작업과는 조금 다른 걸을 갖고 있지만, 작년 겨울, 한 개인으로써 바라본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발언이기도 하다.

두 번째 작업은 〈그림 뻔 그림을 위하여〉라는 작업이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였다. 학생들이 좇고 있는 ‘완벽한 그림’이라는 이상향 주변의 흠어진 것들에 질서를 주고 드러나 보이게 하는 작업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을 그린 드로잉 애니메이션, 그림 그리며 생기는 소리를 수집하여 작곡가와 함께 만드는 곡과 퍼포먼스, 남겨지고 버려진 미술 재료들을 붙여 구의 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캐스팅하여 그 공을 가지고 노는 퍼포먼스.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이 작업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에서 진행하였다. 〈그림 뻔 그림을 위하여〉는 완벽한 그림 혹은 100%의 예술이라는 이상을 좇는 우리를 보며, 이상에 다다르기 위한 수행적 노력, 열정, 닳아 없어지는 연필과 같은 재료들, 움적임, 소리 등 총체적인 그림을 둘러싼 것들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그것들을 재목록화하여 다르게 읽기를 제안하고, 그 안에서 돌아본다. 과연 우리가 그토록 좇던 100%의 예술을 빼고 나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 보았다.

세 번째 작업인 〈바깥의 바깥〉은 인천아트플랫폼 주변 일대를 무대로 삼아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촬영하여 극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한 작업이다. 〈바깥의 바깥〉은 작업실 바깥에서부터 나의 스튜디오 2층 창문까지 계단을 놓고 극의 형식으로 촬영된 ‘바깥’의 영상을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설치하였다. 나는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무는 동안 마치 커다란 영화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작업 방식에 변화가 생겼거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가?

작업의 영감, 계기, 에피소드에 관하여.

예술,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에 대하여.

앞으로의 작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위치한 중구 일대는 화려하고 붉게 장식된 중국풍의 차이나타운, 나무로 지어진 일본식 건축이 모여 있는 골목, 화려한 네온사인과 알 수 없는 냄새로 가득한 신포시장까지, 이곳은 나에게 특색 있는 무대 세트장으로 느껴졌다. 나는 관광객, 현지인, 이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부분들을 캡처하고 이를 무대화하였다. 관람객은 E동 스튜디오 바깥에 난 계단을 타고 올라와 창문 바깥에서 내부의 무대화된 바깥세계를 보게 했다. 바깥의 바깥은 작가 작업실에 난 작은 창문에 계단을 설치해 내부와 외부를 즉각적으로 연결해주는 통로를 만든 작업으로 작업실이라는 내부 공간으로 바깥을 불러들여, 안과 밖의 개념을 해체해 보고자 했다.

나의 작업은 바뀌거나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작업은 나의 상황 또는 경험한 일들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작업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나’라는 형식 바깥으로 나가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길고 긴 길을 돌아서 어떤 점에 돌아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결국 나는 계속해서 변하고 싶고, 변화를 받아들이 수 있는 말랑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작업세계에 영향을 준 인물은 헨리데이빗 소로우의 『월든』과 보르헤스의 여러 책이다.

소로우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월든 호수에 가서 외부세계와 관계 맺지 않고 자급자족하며 산 경험이 있다. 그는 주체적인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살았고, 그의 삶의 태도에서 나의 삶을 반추해보게 되었다. 보르헤스는 백과사전이나 기존의 문학과 자신의 상상 등을 요약하고 가필하면서 글쓰기의 새로운 형식을 열었고 그는 내게 작업의 형식적인 면에서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작업에 있어 원동력 혹은 주로 영감을 받는 곳이 있다면 도서관과 여행일 것이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 관성이자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계기가 필요하다. 책 읽기는 과거의 누군가와 나누는 깊은 대화이고, 여행 속에서는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생긴다.

내 작업의 궁극적인 의미를 정의한다면 ‘존재의 확인’ 일 것이다. 내 존재의 역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다. 나는 작업을 시작할 때 정해진 방식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고 싶기 때문이다.

나의 언어를 가진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의미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하기 위해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다. 일상에 무너지지 않고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기민함과 말랑함을 가지고 싶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대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



바깥의 바깥, Outside of outside, 6×7m outside installation stair, mixed media, 2017, Installation view at Incheon Art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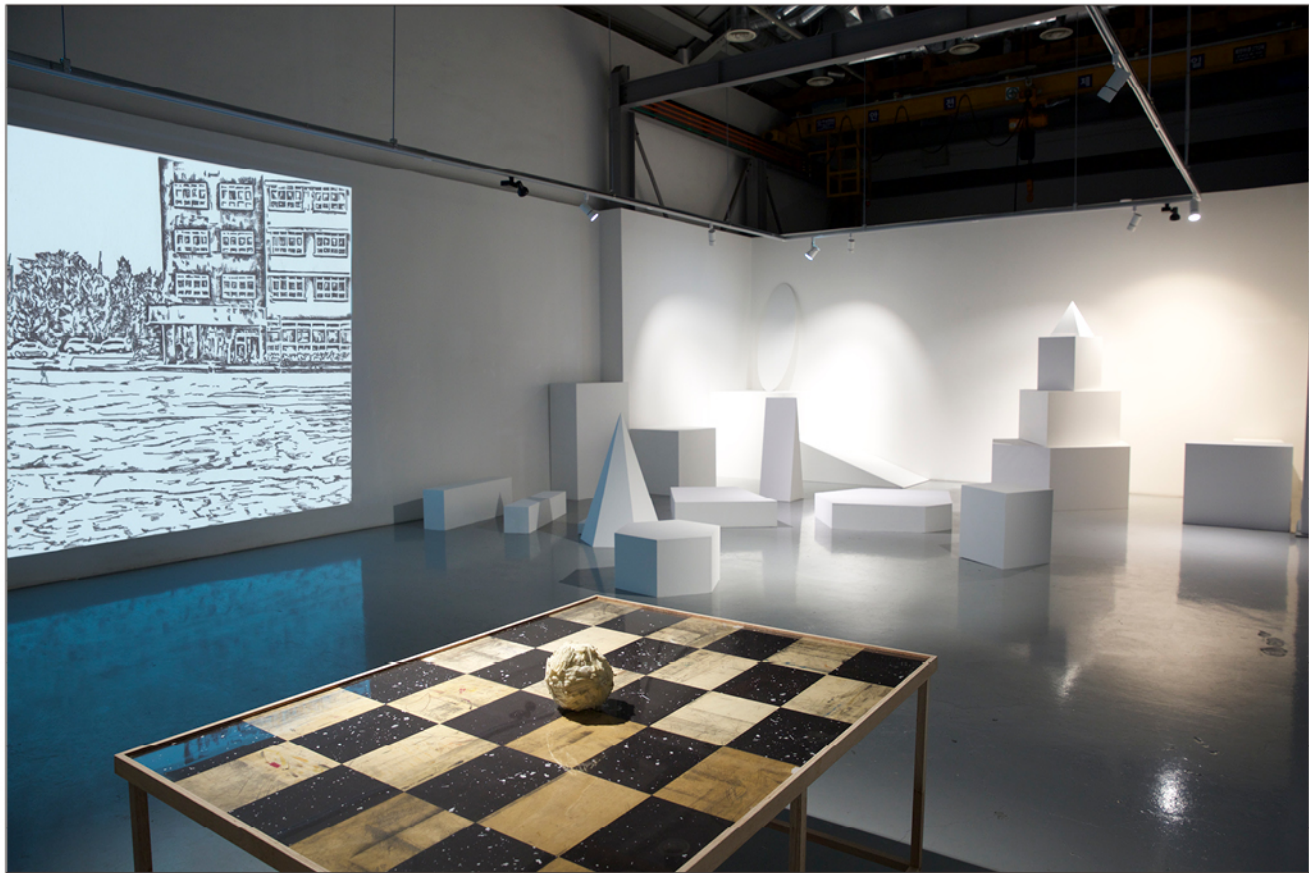


그림 땀 그림을 위하여, For subtracted Art from Art, 2017, Exhibition view at Incheon Art Platform



서울 2016년 겨울, Seoul 2016 Winter, mixed media, 2017, Installation view at Ujeongguk



테이블과 연필공, Table and pencil ball, 120×160×90cm(table), 25×25×25cm(ball), table(drawing board), silicon casting ball at pencil stub,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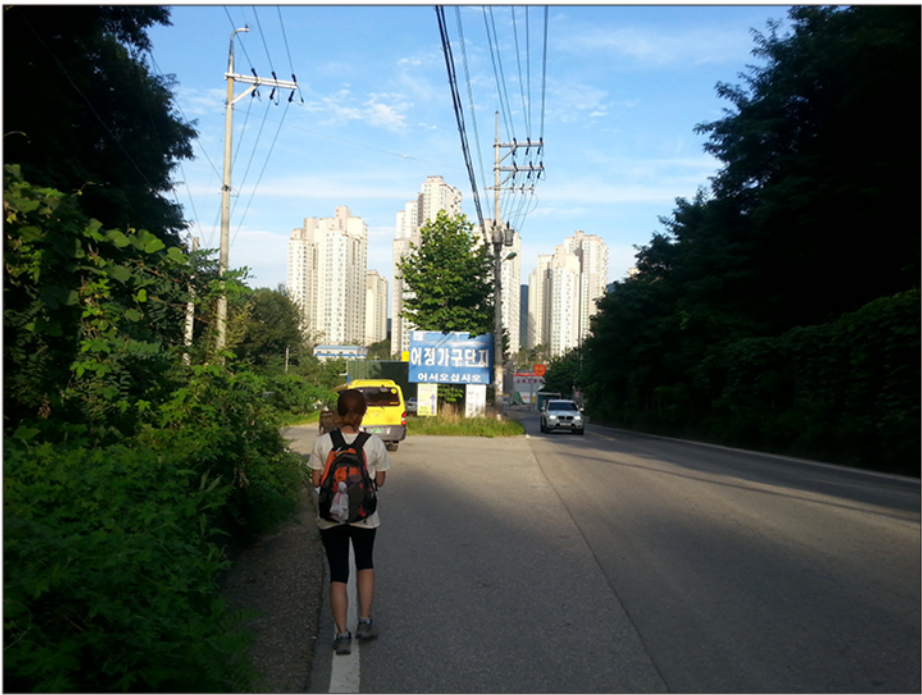
세계목록-입구는창문, World List, 210×120×110cm, wood structure and bed steel frame, 2016, Installation view at Seoul Art Space Guemcheon



랑랑(정혜정×안성석), WaveWave(JUNG Haejung×AHN Sungseok), wood,4.9hp,360angle chair,mirror,live performance, 2014



반짝,퐁당,선과 , 을 잇는 한---강 투어, Twinkle, Splash, Line and , link to Han river To, performace, 2015
반포수상택시승강장-동작대교-노들섬-한강대교를 지나 돌아오는 코스(1시간소요)
Start at Banpo water taxi stand - Dongjak bridge - Nodeul island - Return at Hangang bridge(1hour)



점의기행_집(0km)-작업실(88km)가는 길 위에서, Spot's journey_Home(0km)-Studio(88km) on the road, 2013



여자4: 있잖아 근데, 지난번 수요일날 티비를 보는데, 한 여자가 나왔어, 여자들 돈 있고, 먹고 살기 좋으면 남자 안찾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18년동안 첫사랑을 그렇게 찾았대. 남편이 죽었나봐,
여자3: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듣고 있다)

(그때, 띠리리리 전화벨 소리)
여자2: 여보세요? 응응, 그거 등록해. 일년에 백만원. 제일 싼게 일년에 백만원이야. 한달에 십만원이면 다 배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른손에 전화기를 들고 몸을 바깥으로 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등장인물
60대 등산객 여성들 여러명
지나는 사람들

무대
청계산 등산로 입구 청계 쉼터
구름낀 날씨, 바람 조금
#2
팔각정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녹음이 진 나무들이 적당히 그늘을 만들어준다. 배낭을 메고 지나가는 두 노년의 남자. 팔각정안에 앉아 있는 60대 여성 등산객들 여러명. 모두 화려한 붉은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

등장인물
여자 20대 초반 둘
지나는 사람들

무대
백암리
한산하고 모든 것이 느린 일요일 오후 3시 백암리 내 한 거리.

#1
여유로운 풍경. 거리, 드문드문 걷는 사람들.
시골 마을 가운데.
택시를 기다리는 두 여자.

붉은 옷을 입은 한 남자(청년)가 보통의 걸음속도로 걸어온다. 남자의 뒤로 흰 개 한마리가 따라나온다. 멀어져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 개.
남자가 가는길 반대편으로부터 다가오는 택시.
화면의 오른쪽으로부터 등장하여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로지르는 남자(중년).
택시, 남자(청년), 남자(중년)이 교차로에서 겹쳤다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다.
자전거를 탄 남자(중년)가 노랗게 익은 들판을 본다. 그때 들판 위를 날아오르는 백로.
눈두렁길을 따라 노랗게 익은 벼 너머로 사라지는 남자(중년).

점의기행-상황기록, Spot's journey - #3.Circumstance, 10:55, 2channel video, 2013



바람이며무르는곳(移戡院)이방인의집(異胎院), Where the wind stay, the other's home, dimensions variable, mixed media, 2012, Performance view at Itaewon(day)

정혜정

hochijoa@naver.com
www.hjjung.com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서울, 2013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서울, 2009

개인전

〈서울 2016년 겨울〉, 탈영역 우정국, 서울, 2017
〈9와 3/4플랫폼〉, 이태원 일대, 갤러리 175, 서울, 2012
〈서울개미와 잃어버린 여행가방〉, 갤러리 그림슨, 서울, 2011
〈Close your eyes〉, 갤러리도올, 서울, 2010

주요 그룹전

〈제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일상 여행하는 법〉, 일현미술관, 양양, 2016
〈사이의 대화〉, 일현미술관 을지로 스페이스, 서울, 2015
〈아티언스 랩〉, 대전청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 2015
〈예술가와 1박2일〉,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
〈물도 꿈을꾼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5
〈도서관 독립출판 열람실〉,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2015
〈마음의 기억〉, 단원미술관, 안산, 2014
〈창작의 내일〉,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 2014
〈Korea Tomorrow〉,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2014
〈누구나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4
〈협업의 묘미〉,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 2014
〈New Hero〉, 블루스퀘어 메모, 서울, 2014
〈공유된 고립〉, 금호미술관, 서울, 2013
〈About books〉, KT&G 상상마당, 서울, 2013

주요 상영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울아트시네마, 서울, 2015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 대안공간반디, 부산, 2014
〈상태참조〉, 교역소, 서울, 2014
〈랑랑〉, 공간해방, 서울, 2014
〈Moving Lines〉,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서울, 2014

출판

『랑랑』, 물질과 비물질, 2017
『점의 기행』, 독립출판, 2013
『순금지도』, 독립출판, 2012
『동방해경표』, 미디어버스, 2011

수상 및 선정

시각예술지원 프로그램 선정, 서울문화재단, 2017
시각예술지원 프로그램 선정, 인천문화재단, 2017
다원예술지원 프로그램 선정, 서울문화재단, 2015
아티언스 프로젝트 선정, 대전문화재단, 2015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선정작가, 퍼블릭아트, 2014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작가선정, 서울시립미술관, 2011
일현 트래블 그랜트 대상수상, 일현미술관, 2009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APEX ART, 뉴욕, 미국, 2016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4
금호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천, 2012

JUNG Haejung
hochijoa@naver.com
www.hjjung.com

Education

M.F.A. in Fine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2013
B.F.A. in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2009

Solo Exhibitions

〈Seoul 2016 Winter〉, Ujeongguk, Seoul, 2017
〈9 and 3/4platform〉, the whole area Itaewon, Gallery 175, Seoul, 2012
〈Seoul Ant and A Missing bag〉, Gallery Grimson, Seoul, 2011
〈Close your eyes〉, Gallery Doll, Seoul, 2010

Selected Group Exhibitions

〈Tell Us Your Storie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7
〈The way of traveling daily life〉, Ilhyun Museum, Yangyang, 2016
〈Dialogues Between〉, Ilhyun Museum Euljiro Space, Seoul, 2015
〈Artience Lap〉, Daejeon Government offic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Daejeon, 2015
〈1night 2days with artist〉,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2015
〈Water also can dream〉, Jeju Museum of Art, Jeju, 2015
〈Public Library Independent Publishing Reading Room〉,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2015
〈Inner Voices〉, Danwon Art Museum, Ansan, 2014
〈Creativity's tomorrow〉, Seoul Citizens Hall, Seoul, 2014
〈Korea Tomorrow〉, Dongdaemun Design Plaza, Seoul, 2014
〈Everyone has their stories〉, Gyeonggi Museum of Art, Ansan, 2014
〈Collaboration's attraction〉,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 Gwangju, 2014
〈New Hero〉, Blue Square Nemo, Seoul, 2014
〈Shared Isolation〉, Kumho Museum of Art, Seoul, 2013
〈About books〉, KT&G Sangsangmadang, Seoul, 2013

Selected Screening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Seoul Art Cinema, Seoul, 2015
〈Busan International Video Festival〉, SpaceBande, Busan, 2014
〈Reference state〉, Trade post, Seoul, 2014
〈WaveWave〉, Space Haebang, Seoul, 2014
〈Moving Lines〉, Arko Art Center archive, Seoul, 2014

Publication

『WaveWave』, Waterain, 2014
『Spot's travel』, Independent Publishing, 2013
『Palm Map』, Independent Publishing, 2012
『East Coast Landscape Table』, Mediabus, 2011

Awards and Grants

Visual Art Proje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7
Visual Art Projet,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7
Interdisciplinary Art Proje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5
Artience project,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2015
Selected Public Art New Hero!!, Public Art, 2014
Selected SeMA Young Artists, Seoul Museum of Art, 2011
Ilhyun Travel Grant Grand Prize, Ilhyun Museum, 2009

Residencie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7
APEX ART, New York, U.S.A., 2016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2015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14
Kumho Art Studio, Icheon, 2012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황경현

HWANG Gyunghyun

정혜정

18

산책

‘Stroll on the City’ 직역하면, 시내를 거닌다는 뜻이다. ‘도시산책’이라는 제목처럼 이번 전시는 작가가 도시를 거닐며 바라봤던 무수한 풍경들이 흑백그림으로 가공되어 전시되었다. ‘Stroll’이라는 단어는 인상주의 때 처음 미술사 용어로 등장한다. 19세기를 거니는 산책자(Flâneur)였던 보들레르의 ‘Stroll’은 ‘목적 없는 보행’에 가깝다. 이 ‘거닐’에서 발견되는 풍경들은 그저 우리에게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다. 이러한 ‘거닐’은 자본주의가 안착하면서 ‘여가’나 ‘목적 없는 보행’을 할 여력이 생긴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발생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거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어느 시공을 거닐고 있으며, 어떤 풍경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을까? 물질적 풍요로움을 ‘미래’라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따금 상상하던 것이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면, 이제는 그 시공에 다다른 듯하다.

흰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때때로, 검은 가루 덩어리들에 대해 ‘노마드(Nomad)’ ‘산책자(flâneur)’ ‘역마(Stroller)’ 같은 단어를 써 붙이게 된다.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러나 도무지 정착할 토지가 없는, 빈 공간 위를 부유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 도시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건, 무엇이 언제 어떻게 사라지고,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며,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종이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는 검은 가루들을 바라보며 삶을 투영해내는 노동이 작업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

막

도시를 거닐다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이 허물어지고, 그 위치에 다시 건물이 올라가면, 그곳에는 익명의 군중들이 또다시 도시를 채운다. 도시는 매번 모습을 바꿔 가는 불빛들의 대비가, 꿈틀거리는 풍경들을 연출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 광경을 얇은 막을 통해 확인한다. 전시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그 얇은 막에 복사된 풍경들이다. 이 막은

Strolling

As the title implies, the theme is strolling around the city. Numerous landscapes saw while *strolling around the city* are exhibited as black and white paintings. The word ‘stroll’ first appears as an art history term during the impressionist era. Charles Baudelaire was a flâneur, a wanderer of the 19th century. For him, ‘strolling’ is ‘walking aimlessly.’ In this sense, we perceive landscapes while strolling simply because we have eyes. But ‘strolling’ as ‘leisure’ or ‘walking aimlessly’ started to appear in the late 19th century as capitalism started to emerge. Then, what is ‘strolling’ in today’s society? In what time and space are we walking and from what landscapes do we now see outward? There were times when material wealth was a thing of the ‘future.’ As we confront a reality wherein our imagination has become ‘commercialized’, we are finally in that future. When I draw on a white paper with black powders, I often call them a ‘nomad’ ‘flâneur’ or ‘stroller’. Black powders roam around empty spaces that look splendid and huge, but there are no spaces to settle down in. I started to draw urban landscapes because I did not know which story to tell during a time when things may constantly disappear and reappear. The true nature of my work is to reflect life on paper by contemplating those unsettled black powders.

Layer

Looking at the three-meter picture scroll, audiences have often asked me about the places in the picture. I intentionally drew anonymous places so that no one would recognize them, but most audiences tend to relate places to the ones they know. One audience told me that somehow daily landscapes feel strange, saying that pictures of overseas countries feel familiar to him. It is strange. It is an error to recognize daily places as unfamiliar, but somehow I could agree with him. From reality to a flat surface, and then the other way around: the history of transcending dimensions has reached an invisible layer, encroaching upon our imagination. In particular, as an artist born in 1990, I grew up observing the advancements of media, so I personally consider the world as

언제부터 우리 삶에 놓여있었을까?

2017년 제작된 3m 족자 그림을 보며, 장소를 물어보는 관객들이 많았다. 흑백 그림은 장소성과 인물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의 풍경을 연출했는데, 대부분은 자신들이 알던 풍경과 연관 지어 읽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중 한 관객은 매일 스치는 풍경이 낯설게 다가온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오히려 생전 가본 적 없는 사진 속 외국의 풍경이 실제의 풍경 같았다고 한다. 이상한 말이다. 눈앞에 실재하는 공간을 낯설게 인지하는 오류임에도 그것이 전혀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실재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다시 실재로, 이 무수한 차원 이동의 역사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막이 되어 더 은밀하고 밀접하게 다가온 건 아닌지 생각해본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을 몸소 경험하며 성장한 90년생 작가에게 어쩌면 세계는 수많은 이미지가 끝없이 재생되는 스크린 앞 같기도 하다.

평면

얇은 막에 반복적으로 ‘그리는 일’은 표면에서부터 좀 더 안쪽 세계로 접근하기도 하고,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며, 구현된 세계의 안과 밖의 경계를 오간다. 이러한 행위 중에 중요한 것은 검은 입자들이 있을 위치를 찾는 것이었다. 특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할 때 가장 집중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며, 기계가 시공간의 뒤틀림을 ‘검정’상태로 출력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곳을 모르니까 상상해서 채우거나 검게 칠 할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때때로 예술과 무관해 보인다. 무수한 다차원의 공간을 어떻게 얇은 막에 끼워 넣을까? 흑자는 평면에 싸인 물감 덩어리들을 현실과 연관 짓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라고 못 박기도 한다. 회화는 그려낸 화면을 통해 어떠한 사건을 소환하거나, 미지에 놓이게 만들며, 노동성(정신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회화’라는 형식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서의 ‘회화’를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회화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실은 이 모든 과정들은 예술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유효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논쟁이었다. 예술의 ‘연구적 역할’에 대한 논쟁에서 회화는 그 자체만으로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는데, 실상 즉시성의 오늘날 어떤 미술이 그 자체로 ‘연구적’일 수 있을까? 무엇인가를 소환하여, 그것을 통해 미래가 아닌, 또 다른 동시대를 복제해내거나 재창출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이렇게 개개인이 각자의 다른 시공을 만들고 살아가는 동시대에서 회화의 유효성을 따지는 일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당장의 ‘그림 그리기’에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줬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웅크려 앉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 screen that continuously plays numerous images.

Flat surfaces

‘Drawing’ repeatedly on a thin layer means to enter both the inner and outer world,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both. Here, finding locations for black particles was important. I became more focused while drawing the parts that I do not know well. So, I had to fill that part in with black or with the content of my imagination. This is similar to a panoramic camera that expresses a distorted part of space-time as black. I could fill it in with black or with the imagination because I could not reconstruct it with my memory. Sometimes, ‘drawing a picture’ seems unrelated to art. How can multidimensional spaces fit onto a thin surface? Some claim that correlating paint on a flat surface with reality is a deception. Paintings remind me of a certain event, an event that represents the unknown or that somehow illumines the spiritual underside of reality. Some have even told the story of paintings by denying the form of ‘painting’ itself. In this process, paintings either perish or transform. In fact, all these processes are incessant debates over how effective art is in reality. Is art playing a leading role? If a painting cannot give us the answer, then what form of art can be the pioneering medium in today’s world of the instantaneous? We encounter artworks that recreate or copy other contemporary scenes, not ones that summon or embody the future. So, it is meaningless to argue the effectiveness of paintings in a time when individuals create their own personal universes of space-time. These thoughts provide me with both relief and anxiety in regards to the act of ‘drawing a picture’ in today’s lifeworld. What can I accomplish while crouching in front of a massive, thin surface of paper?



드로잉(역마), Drawing(stroller), 40×103cm, conte on paper, 2016



드로잉(역마), Drawing(stroller), 150×300cm, conte on paper, 2015



드로잉(역마), Drawing(stroller), 150×240cm, conte on paper, 2017



드로잉(역마), Drawing(stroller), 150×300cm, conte on paper, 2017

전반적인 작품설명과 의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자신이 생각하는 대표 작업은 무엇이고 이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젊은 작가로서 소위 스톡(stock)을 쌓은 작업은 〈역마〉〈드로잉〉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상, 도시의 풍경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는가?

나는 사회구조 안에서 마주하는 대상과 사건을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해 재구성하여 동시대의 풍경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 안에서 고립과 유랑을 반복하는 현대인들의 군상을 모티브로 한 〈역마〉, SNS에서 발견한 여러 현상과 미술계의 부조리를 엮어 가상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한 〈지라스: 찌라시〉, 도시의 유흥 장소를 전시공간으로 가져와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로 재구성한 〈노래방 프로젝트〉, 자전적으로 추출한 이미지의 파편들을 공간에 재구성한 〈방주〉 등이 있다.

대표 작업이라면 보통은 작가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거나 그 작가를 유명하게 해준 작업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나에게 현재까지는 대표 작업이 없다. 하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작업은 〈역마〉연작이다.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역마〉시리즈는 콩테(conté)를 사용해 지하철, 터미널, 관광지 등 도시를 부유하는 익명의 군중과 공간을 회화로 재구성한 작업이다. 물론 가장 알려진 작업이라고 해서 대표 작업이 아니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다만 나에게 회화작업은 오랜 기간 훈련해온 가장 익숙한 매체이기에 완성도 측면에서 다른 프로젝트 베이스 작업과 차별화된다. 또한 잘 아카이브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져 버리는 프로젝트나 퍼포먼스 작업에 비해 회화 작업이 비교적 더 알려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한때 개개인이 각자 다른 시공간을 만들어 살아가는 동시대에 ‘회화의 유효성’을 따지는 일이 과연 의미있는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회화작품, 어떠한 장면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TV 채널을 넘기듯, 순식간에 생기고 사라지는 것과 같아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나는 일상의 풍경을 무심한 듯 바라보며 동시대를 유랑하는 익명의 무엇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도시 거주자들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모양새가 역마와 닮아있다. 〈역마〉시리즈에서 다루는 장소는 대부분 서울역, 용산역, 안산역 등의 역의 풍경이다. 나는 이동

Could you introduce your work and your artistic pursuits?

What do you think your representative work is? Why do you think so?

You are working on various projects, but I guess *stroller* and *the Drawing* series built your accumulate ability as a young artist. What prompted you to draw everyday life and urban landscapes?

I reinterpret contemporary landscapes by recreating objects and events through various visual mediums. *Stroller* is a group portrait of modern people who wander and isolate themselves from capitalist society. *Leaflet: Chirashi* (チラシ) is an fake advertising video that captures phenomena found on SNS as well as other absurdities in the art world. The *Karaoke project* brings the audience into interaction with the real entertainment equipment within the exhibition space. Ark is an installation that reconstructs the fragments of images that have been autonomously dispersed into the space.

Generally speaking, most artists would choose the work that made them famous or that best represents their essence. From that perspective, I do not have any major works. *Stroller* is my most well-known art-series. *Stroller* opened in 2013. I used conté to depict anonymous groups of people who roam around subway stations, bus terminals, tourist spots and other places in the city. Of course, the best-known works do not always have to be major works. I have drawn paintings for the longest time among other forms of art. Thus, painting is the most familiar medium for me. Paintings are more sophisticated and suitable than other projects. My paintings are less known to the public in comparison to other projects or performances, which will easily disappear unless they are archived for record keeping.

We’re living in a period where every the individual occupies different streams of space-time. I thought, ‘Is it worth discussing the Effectiveness of painting in this era?’ I was skeptical about sending messages through certain mediums like painting, because images appear and disappear from our perception, in an instant, similar to the experience of watching TV channels. I started to draw anonymous things that wander around the same space of time by nonchalantly looking at everyday life. A station represents Wanderlust because urban dwellers have to continuously move around subway stations for survival. I drew the Seoul, Yongsan and Ansan stations in the *Stroller* series. I drew people and landscapes on a paper in detail after taking photographs of them. At every moment,

특히 회화작품들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사회구조 안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유랑하는 현대인’을 재현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들을 관통하는 시대적 의미나 맥락이 있는가?

익숙한 풍경이지만 재료적인 이유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흑백을 띄면서 미묘한 인상을 만드는데, 특별히 의도한 바가 있는가?

선상에 있는 곳의 군중,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종이 위에 세밀하게 옮겼다. 그리고 기억할 수 없는 순간에 스쳐가는 사람들과 공간의 모습들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우리 현실의 모습과 잠을 수 없는 찰나를 동시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내가 어디에 정착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한다. 이십대 후반, 대한민국 젊은이가 흔히 고민하는 것처럼 나또한 이주와 정착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된다. 한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렸을적 TV를 켜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곤 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는 미야자키의 ‘천공의 성 라퓨타’ 같은 미래시대에 초점을 두고 현재를 불안하게 살아가도 있는 현대인의 감성을 그린 만화들을 보며 자랐다. 히로시마 사건 등을 이유로 일본인들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드러나는 일본회화들이 있는데 흑백회화는 일본의 비슷한 감정을 은연중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8-90년대 생들의 세대감성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언뜻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의식, 목적의식을 즉각적으로 도출해내거나 서서히 드러내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시도들은 오히려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 사회학적인 것에서 달아나 ‘미술’ 그 자체에 가까워지려는 시도였는지 모른다. 회화 이외에도 각 작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현상들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찾아내거나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매 순간 정리하는 것까지가 우선의 일이고, 향후 그것을 통해 무엇을 도출하거나 조합하여 새로운 현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콩테를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우선 ‘역마’ 시리즈는 내가 오고가며 마주하는 일상의 풍경이 작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출에 있어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부여하고 싶었다. 그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삭제하고 컬러를 배제했다.

콩테를 사용한 흑백 그림은 풍경의 ‘인상’을 전달하는 데 유리한 점들이 있다. 일상에서 흔하게 보는 장면이지만, 그것에 아주 미묘한 변화를 주게 되면 기억에 강하게 남게 된다. 풍경의 일부는 마치 무심경하게 지나쳐버린 나의 시선처럼 비워둔 채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장시간 노출해둔 필름처럼 여러 선들이 무질서하게 얹혀있도록 했다. 일상적 풍경에서 색을 모두 삭제하고 풍경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왜곡하기도 하고, 족자의 형태로 말아서 그 풍경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나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콩테는 물감과는 다르게 ‘입자’라는 특성 탓에 그리고 지우며 문지르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우는 과정 안에 재료를 고착시키려 강하게 칠하고 오히려 정착하지 못하고 겹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흥미롭기도 했다.

In your paintings, you have depicted modern people who are forced to roam around capitalist society. Is there any message that you wanted to convey to the people of the present age?

The landscapes in your paintings are common places, yet feel strange and otherworldly. Is it because of the art materials? What were you intending to express?

You recently held a solo exhibition, *Stroller on the city* at the SEUM ArtSpace in Seoul, please introduce *Stroller*.

I was drawing and erasing the people who passed through these spaces, to simultaneously capture the images of the present and immediate moment.

When I do my work, I always agonize over where I should settle down. As other Koreans in their late 20s, I also worry about movement and settlement. When I was young, I watched Japanese animations, and they usually portrayed people who cannot settle down and therefore must roam around. One of them was ‘Laputa: Castle in the sky’, which shows modern people who dream about the future, living unstably within the present moment. Some Japanese paintings depict mentally unstable people due to the Hiroshima bombings and other incidents. I believe black and white paintings implicitly reflect a sentiment similar to that of the Japanese. Those somehow entail characteristics of people born in the 80s and 90s. Perhaps this is a way to both immediately and gradually express criticism against or the discovery of a sense of purpose within the real world. But for me, my various attempts represented a movement closer to the art itself, as well as a running away from society. I am interested in all phenomena stemming from various mediums, including paintings. I discover phenomena and make them into artwork. First, I have to organize every stage of the artwork. By doing so, I hope to experience a new present by attempting to summon the different qualities of the work from the future.

There are many reasons why I use conté. First, the subject of the *Stroller* series is the daily landscape, so I wanted to add some anonymity. That’s why I didn’t draw things where people could guess the exact place and the excluded color.

Black and white paintings using conté can better deliver the ‘impression’ of landscapes. The landscapes I drew on *Stroller* are commonplace, but if subtle changes are added, the impressions of the images remain strong. I left some parts blank as I insensitively passed by moments, and made lines chaotically intertwine with other parts as in a photographic film that has been exposed to the light for a long period of time. I removed all colors, and erased or distorted some parts of the landscape. And I rolled papers as a form of scroll, so that audiences can appreciate the continuous landscapes. Unlike paints, conté should be erased and rubbed repeatedly because it has ‘particles’. For me, it was ironic and interesting, because even if I vividly drew the lines so that the particles could be fixated on paper, the conté cannot settle and smooth because of its particulate nature.

Stroller on the city is the fourth solo exhibition of the *Stroller* series. As the title says, the theme is strolling around the city. I’d like to invoke the theme of the ‘flâneur or stroller’, as in the work of Charles Baudelaire, in my painting, In his poem, ‘stroll’ is to ‘walk aimlessly’. Landscapes that we perceive while ‘walking aimlessly’ are just images that we see. The subject of black and white paintings displayed in

최근 세움아트스페이스, 서울에서 개인전을 진행했는데, 개인전 «도시산책»(2017)에 관하여.

2017년 경기도 미술관 〈드로잉룸〉전에서 회화 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디스플레이 했는데.

2015년 〈흑백군중〉개인전으로 데뷔하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 같다. 꾸준히 회화작업을 진행해오다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시도하거나 프로젝트 베이스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2016년 경기창작센터 «보물섬»전에서 선보인 〈방주〉작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도시산책»은 〈역마〉시리즈의 네번째 개인전이다. 작품명 〈Stroll on the City〉를 직역하면, 도시를 거닐다(산책하다)는 뜻이다. 나는 보들레르가 선취했던 ‘산책자(Flâneur)’의 시선을 작품에 투영하고 싶었다. 보들레르에게 있어 ‘Stroll’은 ‘목적 없는 보행’에 가깝다. 이러한 ‘거닐’을 통해 발견하는 풍경들은 그저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이었다. 전시에서 선보인 흑백 그림의 대상들은 ‘비판적 산책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21세기 도시의 풍경들이다. 자본주의 안에 현대인들이 ‘산책’으로써의 ‘목적 없는 보행자’가 아닌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이주, 이동해야 하는 ‘타의적 유목민’들의 풍경인 것이다. 마치 온라인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초고속 문명사회 안에서 유랑하는 데이터들과 같은. 이번 전시 역시 ‘유랑하는 현대인들의 군상’을 회화적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Drawing Dome〉〈Drawing Room〉등 〈Drawing〉전시 시리즈는 전시 공간 안에서 작품을 보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전시였다. 무엇을 어떻게 구현하였든, 또 그것이 어떤 그림이 되었든 보는 방법이 일관적이라면, 그것 또한 예술적 사고방식에 어긋나지 않나 싶다. 형식적 탐미주의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가장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보는 방법’에 대한 자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벽에 걸린 채 일자로 마주해야 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그림’ 특히 나의 ‘흑백 그림’처럼 대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읽어야 하는 ‘그림’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 바닥으로부터 출발하여 벽으로 이어져 났으면서 보는 (ㄴ)자 그림, 스크린 기법을 사용한 곡면 형태의 그림, 종이 양 끝을 말아 화면의 확장을 암시하는 족자 그림의 구조는 작업의 내부적 이야기뿐 아니라, 보이는 방식에 대한 시도이기도 했다.

단지, 작업을 하는데 매체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다양한 프로젝트나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회화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회화작업에서 발언하기 어려운 사고, 언어, 감성들을 발현시키고자 할 때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싶었다. 가끔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수 없는 것들이 매력적일 때가 있다.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면 문명사회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그 도시를 이루는 불빛 아래서 군중들은 ‘생존’과 ‘이상’을 오가며 꿈을 꾸다.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 정착할 수 없는 물렁한 건축물들, 인공의 빛에 취해 이끌리는 군중들. 이곳은 자각몽의 공간(Phase)이다.”
이 작업은 작업 노트로부터 출발한다. 자전적으로 추출한 이미지의 파편들을 그대로 공간에 구성하여 설치한 〈방주〉는 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세계를 도식화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재료들을 찾아 재구성했다. 재료와 형태를 기반으로 ‘무대’ 같은 오브제를 제작했고, 그 안에서 어떠한

This year, you also displayed various forms of painting at the Drawing Room exhibition at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You debuted by holding a solo exhibition, Crowd in black and white in 2015. And you have done other projects in different forms and ways during such a short period. At first, you drew paintings but then you tried other displays and projects. Why have you diversified your works?

Please explain more about Ark, which you displayed at the exhibition called Treasure Island, which was held at Gyeonggi Creation Center in 2016.

the exhibition is the landscape of the city seen from the eyes of a stroller who is wrapped within contemplative thought. Modern people in capitalist society are ‘unwilling nomads’ who endlessly have to move for survival, not ‘strollers who walk aimlessly’. It is like data wandering around at a high-speed, the hyper-connected and hyper-civilized online world. The goal of this exhibition was to capture the images of groups of modern people roaming around the city through painting.

The Drawing series, such works as the Drawing Dome and the Drawing Room, was an exhibition that carried out different experiments concerning how we perceive artwork at an exhibition. The true nature of art is to appreciate artwork in all possible ways, regardless of the type of artwork. Asking ourselves how we appreciate artwork is the right way to have a critical attitude towards estheticism. How can we overcome the unilateral ways of appreciating the artworks that are just hanging on a wall? How should I display pictures wherein the subjects are mysterious, as in my ‘black and white paintings?’ I experimented with a Korean character, ‘ㄴ’, as the shape of the painting, so that people could appreciate them while walking along the corridors. I also tried a painting on a curved-shape surface, using a screen-printing technique, as well as a form of scroll painting that involves the extension of a screen by rolling both ends of the paper. I made all these efforts not only to tell my story but to change the way paintings are displayed.

I am open to every medium when I do work. I work on paintings while doing projects or installations. I wanted to try new things with ideas, languages and emotions that are hard to express through painting. Sometimes, rough but undefinable ideas and emotions are more attractive.

“Looking at the lights of the city, we know that civilized society never sleeps. Ironically speaking, under that light of the city, people dream somewhere between ‘survival’ and ‘fantasy’. Blurred lines between day and night, unsettled buildings, people drawn by artificial lights. This is a state of lucid dreaming.”
The Ark exhibition starts on this note. Ark is an installation that interweaves different autonomous pieces of an image. I made visual images by mapping a conscious world and reorganized them with materials that fit well within the concept. I created a ‘stage’-like object based on materials and forms and then presented the performances according to certain principles. I also created a Kitsch-style by installing mirror sheets and lighting mirror spheres and drawing images with a lightsaber. This is a performance to contemplate the act of ‘drawing’ by drawing images with lights on the surface, not with paint on a paper. During the opening hours of the exhibition, audiences could take a selfie or dance. Audiences commented that the performances and places were dreamlike.

	<p>원칙에 따른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미리 시트지와 미리볼 조명을 설치해 왜곡되고 키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그 표면에 야광봉으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종이 표면에 물감이 아닌거울 표면에 빛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기’에 대한 고찰을 행위로 표현한 작업이었다. 관람 시간에는 관객들이 셀카를 찍거나 춤을 추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몽환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관객들의 평을 들었다.</p>	<p>Then, what about the <i>Karaoke Project</i> (2016) and <i>Leaflet: Chirashi</i> (チラシ), exhibited at the Gyeonggi Creation Center?</p>	<p><i>The Karaoke Project</i> aimed to observe people’s behavior in unfamiliar spaces. To do so, I recreated real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in an exhibition room. At that time, I installed a karaoke machine and invited my colleagues to sing. I observed a group of people that did not know each other, but they ultimately intermingled and sang. And I thought that this is a moment where daily life turns into art.</p>
<p>경기창작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노래방 프로젝트〉(2016)와 〈지라스:찌라시〉에 관하여.</p>	<p>〈노래방 프로젝트〉는 도시의 유흥 공간을 스튜디오에 옮겨와 낮은 공간에 마주한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작업실 내부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관객과 동료 작가들을 초대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를 모르는 타인들이 한 공간에서 각자의 소리를 내며 자연스레 섞이는 광경을 목격했고 나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p>Chirasu (散らす) is similar to the etymology of Chirashi (チラシ), meaning ‘to scatter’. Chirashi, however, means ‘unverified information’. I made an advertising video, named <i>Leaflet: Chirashi</i> (チラシ). It contains phenomena on social media and absurdity in the art world. A fictional character, ‘Artist Hwang’, promotes artwork in the video, saying he guarantees the profitability of investing in his artwork within a given period. In February, I also performed scattering the name cards of Artist Hwang in downtown Seoul. I just wanted to remind people about the empty desires and excessive selfishness of modern humanity, where we only dream about ideals that are too far from the reality.</p>
	<p>지라스(散らす)는 찌라시의 어원으로 ‘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흔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뜻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발견되는 현상들과 미술계의 부조리를 엮어 〈지라스: 찌라시〉라는 가상의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가상의 인물인 ‘황 화백’이 일정 기간 자신의 창작활동에 투자를 하면 그에 합당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영상이었다. 영상과 함께 출력된 홍보명함은 올해 2월 서울 도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나는 작품을 통해 객관적으로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을 는 현대인들의 헛된 욕망과 과도한 이기심에 대해 환기시키고 싶었다.</p>	<p>What is a word or concept that can explain your work?</p>	<p>It is ‘drawing.’ Up until now, I have used ‘Drawing’ a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and for other works, including my flat paintings. For me, drawing is not just about ‘drawing,’ but it encompasses the entire process of creation from drawing, carving, talking, moving, imagining and thinking, toward producing a more perfect endpoint.</p>
<p>본인의 작업을 함축하려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단어나 개념이 있다면?</p>	<p>Drawing. 평면회화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작품들이나, 전시 제목으로 〈Drawing〉을 사용한다. 내 작업 안에서 드로잉은 단순히 ‘그리기(소묘)’가 아닌 ‘완성에 도달하기까지의 그리기, 조각하기, 대화하기, 움직이기, 상상하기, 사유하기 등 모든 창작 과정’들을 이야기한다.</p>	<p>Are there any important changes regarding the creative process of recent works?</p>	<p>I have more pressure and fear than when I first started creating artworks. In the past,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doing what I want. But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what I can. Creating and experimenting things persistently as a learner is more crucial, rather than proclaiming my own thoughts. When I have more experiences and insights, I want to organize them into one concept. One little change is that I can use wider workspaces more freely than before, since I now have more spaces to work in.</p>
<p>최근 작업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p>	<p>작업을 처음 시작했을때 보다 부담감과 두려움이 커졌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했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관념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작가로서 배우는 자세로 무언가를 계속 생산하고 실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험과 통찰력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싶다. 소소한 변화라면 작업 공간이 커짐에 따라 작업 스케일을 마음 놓고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p>	<p>Please tell us about the <i>Slang Market Project</i> that you performed during your residency period at the Incheon Art Platform.</p>	<p><i>The Slang Market Project</i> will be performed during the Open Studio period. In June, I bought slangs as audio files from the public after a screening process. These chosen slangs were recreated as art goods or drawings by collaborating with other artists. And we will sell them at an art market called the <i>Drawing xxx</i> for three days from November 10th in an Open Studio. We borrowed a ‘purchasing collection’ system from another art institution and wanted to see how well this system could be applied for us. To record exact dates and details during the project, we unveiled the progress of the project over time on social media. I extracted the themes of the work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but this time, I wanted to create direct correlations between the works and my experiences. To do so, I even worked in a related-industr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was a participatory project, visualizing another side of capitalist society that we are not aware of.</p>
<p>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에 진행하고 있는 작업에 관해 설명해 달라.</p>	<p>여러 작업들이 있지만 오픈스튜디오 기간에 발표할 작업은 〈비속어 매입공고〉이다. 지난 6월 〈비속어 매입공고〉를 통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속어’를 음성 파일로 지원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매입하고, 매입된 ‘비속어’들을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굿즈나, 드로잉으로 재가공하여 오는 11월 10일부터 3일간</p>		

	<p>오픈스튜디오에서 아트마켓 (Drawing xxx)를 운영한다. (2017 비속어 매입공고)는 어느 미술기관의 ‘소장품 매입’시스템을 차용하여, 시스템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진행 간 정확한 날짜와 기록이 남도록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시기별 진행 상황을 공개하였다. 나의 다른 작업이 개인의 경험에서 작업의 주제를 추출하는 것이었다면, 본 프로젝트의 경우 작업과 상관관계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일정시간 동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등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프로젝트의 경우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로, 체감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 이면을 시각화하는 과정이었다.</p>	<p>Were there any changes in your work process during the Incheon Art Platform?</p>	<p>The good thing about the Incheon Art Platform is the variety of programs. I usually make a plan and live according to that plan, so I am not really affect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But, I was able to expand my personal horizon of art after visiting the ‘Skulptur Projecte Münster 2017’, as well as ‘Documenta 2014 in Kassel’, which is one of the programs of the Art Platform. Studying the works of theorists was also an effective way to organize my works. I could share this information and these experiences with the other artists who were also working at the residence. All of those were a good influence on my works.</p>
	<p>아트플랫폼의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워낙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어 생활하는 성격이라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잘 안 받는 편인데 올해 플랫폼 프로그램 중 ‘예술 현장학습(독일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 카셀 도쿠멘타)’은 작업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장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전 진행했던 이론가들의 스터디도 작업을 정리해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함께 입주한 다른 작가들과 여러 가지 미술계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것들이 작업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 같다.</p>	<p>Where do you find inspiration or motivation?</p> <p>Do you have any works that you planed but could not make into a reality, and why?</p>	<p>I think my ‘life’ as an artist and my experiences are my inspiration. I am inspired either by personal experience or by social issues.</p> <p>Timing and environment matter a lot. ‘Art’ cannot be realized just by holding a few good exhibitions nor can we find ‘art’ in everyday life. It is ironic and difficult for an individual to do art in such a massive society. But there are some necessary preconditions to making art effectively in modern society. Artists should consider where, what and with whom they do work and how long they should keep working in that way. But we need much time and effort to find the right way to do art. Of course, what I need right now is to find large spaces and ways to continuously perform works by myself.</p>
<p>작업에 있어 원동력 혹은 주로 영감을 받는 곳이 있다면?</p>	<p>작업에 있어 원동력은 작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경험’인 것 같다. 개인적인 사건이 영감을 주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p>	<p>What’s your future plan for the next two to three years?</p>	<p>Just imagining my future plan makes me happy. I always agonize over whether I could create better products or whether I could continue to do art in the next two to three years.</p>
<p>혹시, 구상만 하고 실현하지 못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며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p>	<p>시기와 환경의 문제인 것 같다. ‘예술’은 좋은 전시를 한두 번 한다고 발현되는 것도, 그렇다고 삶에서 늘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거대한 사회안에서 개인이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막연한데, 어쨌든 예술을 동시대에서 유효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떠한 성격의 예술을 발현하는데 있어서 때때로 누구와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지속하거나 버려야 할지가 중요한데 그런 조건들을 인식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시기에 필요한 건 큰 작업 공간과 작업을 자생적으로 지속,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p>	<p>What’s your goal as an artist? How would you achieve it?</p>	<p>I work to be an artist, not as an artist. Art is not something that an ‘artist’ does, but is found or realized in life. In comparison to ordinary people, the artists that we know are the ones who just work within the boundaries of art. For now, I hover around the boundaries, but I hope that someday I can be at the center of art. Art seems to be a marginal thing, but it is still great.</p>
<p>2-3년 이후 앞으로의 작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p>	<p>‘2-3년 이후 작업계획’이란 말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과연 2-3년 후에 지금보다 나은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지속은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p>		
<p>예술가로서 목표가 있다면? 이를 이루기 위한 고민이 있다면?</p>	<p>예술가로서의 목표라기보다, 이따금 예술가가 되어 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술은 ‘예술가’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그저 이따금씩 발현되거나 발견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예술가’라고 말하는 직업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한 일들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 주변을 맴돌다, 어느 순간 발현되는 예술의 중심에 있었으면 한다. 소소하고 위대한 일인 것 같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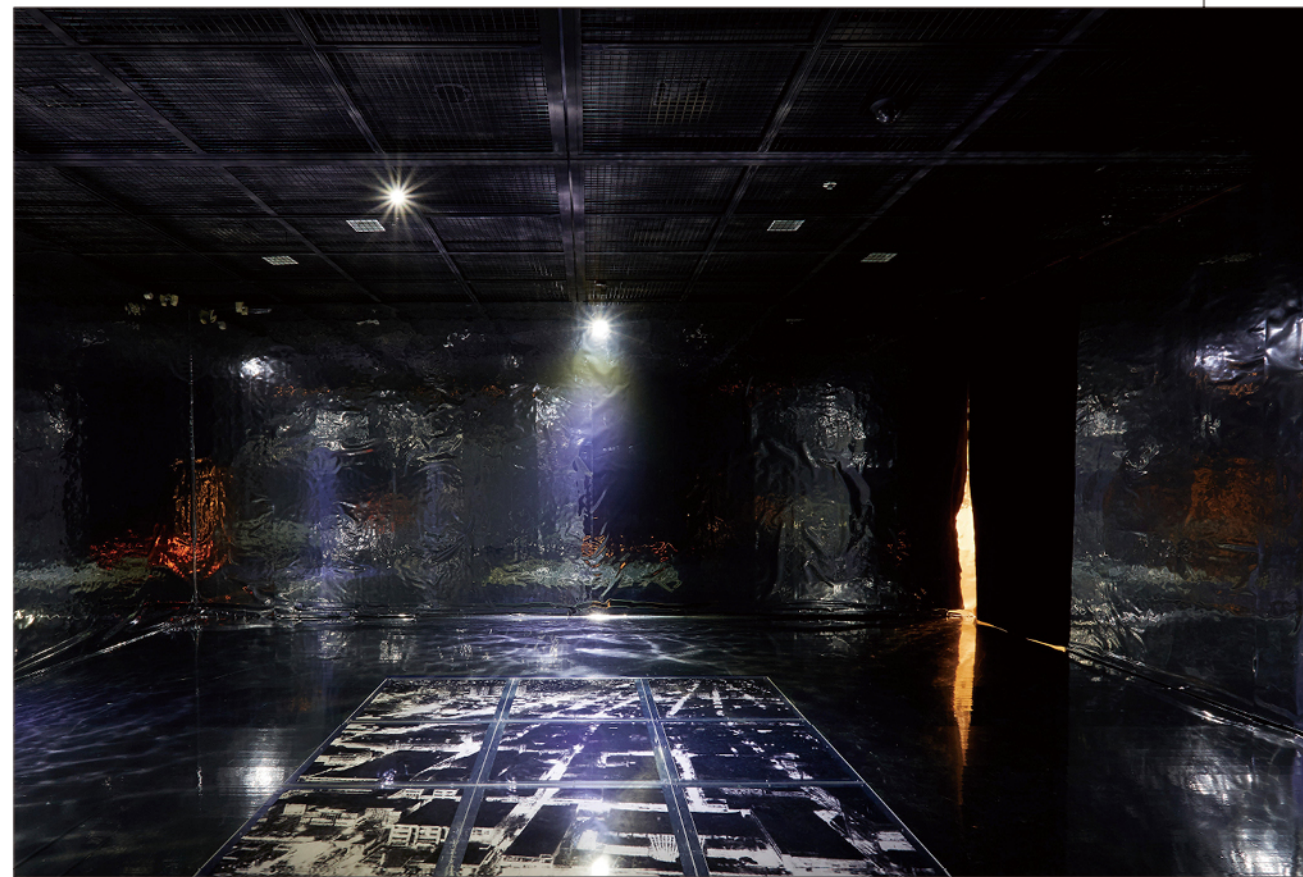
드로잉('L'자 드로잉), Drawing(L-Shape), 800×150cm, conte on paper, 2017, Installation view a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드로잉(아치형태 드로잉), Drawing(Arch), 150×600cm, conte on paper, 2016



방주, Ark, 330×550×191.5cm, space installation, 2016, Installation view at Gyeonggi Creation Center



평(㎡), Squaremeter(㎡), 330×330cm, space installation, 2017, Installation view at AramNuri Arts Center



지라스(散らす), Scatter, 12:00, video Installation, 2016



Drawing XXX, Slang Market Project, 2017

황경현
howng90@naver.com
www.hwanggyunghyun.blogspot.kr

학력
목원대학교 기독교미술전공 졸업, 대전, 2014

개인전
〈도시산책〉, 세움 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7
〈퀵타임프: 황경현 Drawing Room〉,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7
〈Drawing Dome〉, 스페이스 ADO, 인천, 2016
〈시대역마〉, KSD갤러리, 서울, 2016
〈흑백공간〉, 대안공간 눈, 수원, 2015
〈흑백군중〉, 갤러리 1898, 서울, 2015

주요 단체전
〈2017경기유망작가(신진) 생생화화:生生化化 Something New〉, 고양아람누리 미술관, 고양, 2017
〈유니온 아트+플러스 X-유니온 아트페어〉, 인사1길, 서울, 2017
〈IAP 단편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2017 Scanning Landscape〉,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7
〈제 2회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2017
〈유니온 아트페어 2016〉, 복합공간 네모, 서울, 2016
〈블루미 아트페어 바람이 짓는 집〉, 신세계갤러리, 인천, 2016
〈보물섬〉,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6
〈창작공간 페스티벌 Sensible Reality〉,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 2016
〈낭만적나침반〉,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6
〈2016 인천 영아티스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인천, 2016
〈행복에세이〉, 대안공간 눈, 수원, 2016
〈시대관찰〉, 인천시평생학습관 갤러리나무, 인천, 2015
〈심사조화〉, 선화기독교미술관, 대전, 2014
〈10월의 드로잉〉, 갤러리 I am, 파주, 2014
〈사랑의 메시지전〉, 선화기독교미술관, 대전, 2014
〈24 자정 프로젝트〉, 아트스페이스 자코, 서울, 2012

프로젝트
〈Drawing xxx 비속어 매입공고 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노래방 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6

수상
뉴 드로잉 프로젝트 입상,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2017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6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HWANG Gyunghyun
howng90@naver.com
www.hwanggyunghyun.blogspot.kr

Education
B.A. in Christian Arts, Mokwon University, Daejeon, 2014

Solo Exhibitions
〈Stroll on the City〉, Seum Art space, Seoul, 2017
〈Quantum Jump:Drawing Room〉,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2017
〈Drawing Dome〉, Space ADO, Incheon, 2016
〈Stroller〉, KSD Gallery, Seoul, 2016
〈In Black & White Space〉, Alternative Space Noon, Suwon, 2015
〈The Crowd of Black & White〉, Gallery 1898, Seoul, 2015

Selected Group Exhibitions
〈Something New〉, Goyang Aram Nuri, Goyang, 2017
〈Union ART+plus X-Union Art Fair〉, Insa 1gil, Seoul, 2017
〈IAP Short storie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7
〈2017 Scanning Landscape〉, Art Center White Block, Paju, 2017
〈2nd New Drawing Project〉, Chang Uccin Museum of Art Yangju City, Yangju, 2017
〈Union Art Fair 2016〉, Complex Cultural Space Nemo, seoul, 2016
〈Bloomy Art Fair〉, Shinsegae Gallery, Incheon, 2016
〈Treasure Island〉,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16
〈Art Space Festival Sensible Reality〉, Seoul Citizens Hall, Seoul, 2016
〈Romantic Compa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16
〈2016, Incheon Young Artist〉, Incheon Educational and Cultural Center for Students Gaon Gallery, Incheon, 2016
〈Happy Essay〉, Alternative Space Noon, Suwon, 2016
〈Observe The Time〉, Incheon Lifelong Education Center Gallery Namu, Incheon, 2015
〈Harmony〉, Sunhwa Christian Art Museum, Daejeon, 2014
〈October's Drawing〉, Gallery I am, Paju, 2014
〈The Message of Love〉, Sunhwa Christian Art Museum, Daejeon, 2014
〈24 Midnight Project〉, Art Space ZAKO, Seoul, 2012

Projects
〈Drawing xxx Slang market projec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7
〈Sing&Song projec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16

Awards
New Drawing Project win a priz, Chang Uccin Museum of Art Yangju City, 2017

Residencie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7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16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ang Uccin Museum of Art Yangju City, Seoul Museum of Art

2017 Platform Crit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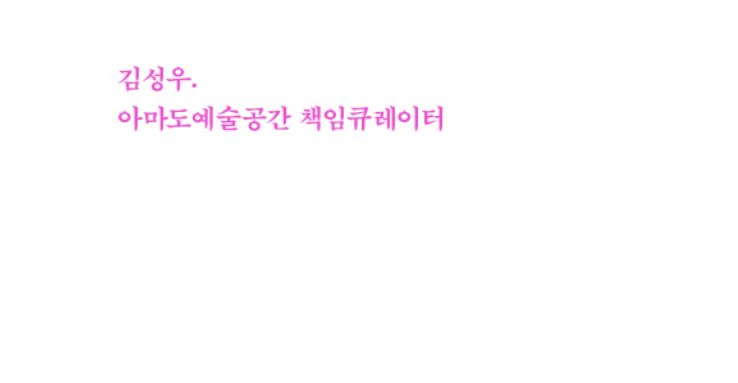
Weekly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공간에서 장소로

황문정의 작업은 특정 장소를 바탕으로 한다. 더 정확히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공간이 특정한 의미의 장소로 탈바꿈되는 어떤 순간에 집중한다. 이푸 투안(Yi-Fu Tuan)에 따르면, 공간은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공간이 끊임없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장소는 그것이 정지하여 고정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경험에 의해 유동적인 움직임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는 순간 그것은 장소가 되는 것이다. 공간은 어떤 정체성과 성격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상태에 가까우며, 사용자에 의해 그리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존재에 의해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작가는 어떤 공간이 특별한 의미나 가치로 전환되는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하며, 자신의 신체 감각으로 그것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어떤 이야기의 열개를 만들어 나아간다. 작가는 영국에서의 거주 당시 학교와 집 사이의 통로로서 매일 같이 지나쳐야 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일상에서 수집한 오브제의 조합을 통해 선보였다. 그렇게 초창기의 작업 〈무제〉(2013)에서는 개인의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소 거친 기준에 의해 오브제를 수집, 분류하고 그것을 심미적인 형태로 드러냈다면, 작가의 지역과 장소에 대한 관심은 〈사이 넘어 사이〉를 통해 조금 더 분명한 어조와 형태로 확장하기 시작한다. 작가는 여기서 자신의 생활반경 안의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토대로 그 위에 자신의 상상을 덧씌워 가상의 이야기로 드러내거나(사이 넘어 사이, 2014), 특정한 장소와 관련하여 실재하는 자료만을 짜깁기하여 현실에 달라붙어 있지만 모호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곤 하였다. 지역에 대한 과거의 기록과 작가 자신의 상상, 그리고 그것을 읊어내는 어떤 인물 - 설정된 화자를 경유하며 지역을 읽어내는 이 작업은 가상과 실재 사이를 가로지르며 유실된 공동의 기억이나 경험을 가시화시킨다.



Space to Place

HWANG Moonjung's work are based on a specific place. To be more specific, the artist expresses a certain act that occurs in a specific space to focus on a moment when the space is turned into a place that has a specific meaning. According to Yi-Fu Tuan, a space is relatively ambiguous and abstract compared to a place. A space is where constant movement occurs whereas a place is where the movement stops and is fixed. That is to say, when human experiences cause a fluid movement to be fixed as a meaning, that becomes a place. A space is close to state before being defined with an identity and a character and is given a value by a user and various existence that establishes a link with that, ultimately given an identity as a place. For a moment when a space is turned into a special meaning or a value, the artist endlessly records what he observes and delicately captures it with senses of her body to establish a structure for a certain story. When she was staying in England, there was an area between her school and house, which she needed to pass by every day. She presented her interest in the area after collecting and combining objects in daily life. In her early work *Untitled* (2013), the artist collected and classified objects with a strict criterion. By contrast, in *Between Beyond Between* (2014), her interest in areas and places began to be expanded through clearer tones and forms. Based on research on an area of her neighborhood, she presented a fictitious story about the area with her imagination (*Between Beyond Between*, 2014). In addition, the artist collected and edited actual data on a specific area and presented a real but vague story. In order to create the work, she goes through various processes; data on the area, the artist's imagination, a certain character who recite the imagination and previously set speaker. This work visualizes common memories and experiences that are lost, crossing fiction and reality.

Relation

HWANG Moonjung presented a point where people who visit a space establish relations or a point which uses a certain plant or environment as the background and which. In other words, the artist understands a given space by

작가는 공간을 왕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 지점, 또는 그곳을 점유하는 특정 사물이나 환경을 배경으로 그들이 맺는 관계의 형태 등 특정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구조와 그 발생 원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주어진 공간을 이해해 나아간다. 이렇듯 황문정의 작업에서 공간이 장소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지점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생활 양식이나 공간의 활용 방식 등을 관찰하고 개입하여 기존의 관계 맺음을 지속시키거나 그것을 비틀어 새로운 관계를 발생시킴에 있다. 그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장소'로서의 기존 조건을 세심히 뜯어보거나, 공간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물과 그것의 주변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환경과 활동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어진 공간에 개입한 자신과 타자가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의 형식들을 명민하게 포착해냄으로써 장소가 가진 기존의 특성에 새로운 현재적 관점, 그리고 관계에 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의 장소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해외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Airborne Artist Residency)에 참여하는 동안 그곳의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조사하고,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는 공공적 기능을 지닌 장치를 야외에 설치하거나 (Happy Fetch, 2015), 인간 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동물의 서식지라는 공원의 또 다른 기능에 주목하여 그 기능을 확대, 확장한 가상적 환경을 구축하기도 하며(다람쥐 계단, 2015, 신선한 먹이주기, 2015), 초기 도시 계획에 의해 상대적으로 넓은 녹지를 갖게 된 지역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한 반응으로 대안적 삶의 형태가 가능한 일인용 이동식 친환경 동식물 사육, 재배 카트(다생산 카트, 2015)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창작 활동과 행위의 바탕엔 항상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에 내재하는 다양한 관계와 그것의 질서를 가시화함으로써 다른 여타의 공간과는 다른 개별적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한다. 결국, 작가는 공간에 내재한 장소적 속성을 기존 관계의 지속이나 새로운 형태로의 구축, 또는 변형을 통해 가시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장소성은 확장되거나, 축소, 변형되며 유동적인 형태의 독특한 무엇이 된다.

기능

공간에서 장소로, 그리고 장소의 성격을 규정하는 다양한 관계망을 가시화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기능'이 있다. 황문정의 작업에서 '관계(맺기)'가 장소를 규정하는 당위라면, '기능'은 그 관계 위로 드러난 장소성을 시각화하고 작가의 의도대로 관계를 작동하게 하는 지점이다. 즉, 공간에 내재하는 모종의 다양한 관계성은 기능에 의해 시각적으로 치환되며, 기능에 주목한다는 것은 기존의 관계를 비틀거나 확장하고, 관계적 행위를 물리적 차원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조각을 전공한

raising questions about how various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occur in a given space. As such, the point where her space obtains a meaning as a place is when she observes and intervenes in the life style of users who use the space or ways to utilize the space and when she establishes new relations. She looks closely at the criteria for 'a place' to exist in the view of a stranger. In addition, the artist researches a lot of objects that constitute the space and various forms of a user's environment and activities, which occur on the fringe of the space. Furthermore, she sharply catches new forms of relations between herself and others who intervene in the space in order to present not only new modern views about existing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but also placeness as an intersection of various potentials that are inherent in the relations. For instance, while participating in Airborne Artist Residency abroad, she researched the surroundings and life styles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artist set up an installation that has a public function to support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who go for a walk with pet animals in the park (*Happy Fetch*, 2015) or escapes from human-centered thought and focuses on another function of a park, which is a habitat for various animals. By doing so, she expanded the function and established an imaginary environment (*Squirrel Stairs*, 2015, *Feeding fresh food*, 2015). For an area which obtained a relatively large greenbelt due to early city planning, she makes eco-friendly carts which aim to raise animals and cultivate plants (*Multi-production carts*, 2015). On the basis of such creation and activities exist spaces and she visualizes various relations and orders that are inherent in the spaces to obtain an identity as a plac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other spaces. In other words, the artist visualizes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a space by establishing or maintaining or changing existing relations. In such process, placeness is either expanded or diminished or changed and becomes something that is in mobile forms.

Function

In a process of visualizing various networks which define a space as a place and a place's characteristics, there always exists 'function'. If a relation is the reason for defining a place in her works, the function is a point which visualizes placeness that appeared above the relation and activates the relation as the artists intends. That is to say, a various kinds of relations that are inherent in a space are visualized and replaced by functions. Focusing on functions means to make a functional instrument, which twists or expands existing relations and visualizes relational acts at physical level. The artist's attitude, who majored in sculpture, is shown in a formative structure, which is temporarily established to forge and maintain relations among individuals. That's why, criteria for evaluation esthetic values of her works are defined by whether the temporary structure performs its given functions properly and effectively. In *Camouflage, Intervention, Assimilation* (2016), by making a small-sized vegetable garden at the boundary of another vegetable garden positioned

작가의 태도는 개별자들의 관계를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기능을 위해 임시로 구축된 조형적 구조에서 드러난다. 그렇기에 황문정의 작업에서 미학적 가치 판단의 기준은 그 임시적 구조가 주어진 기능을 올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느냐로 규정할 수 있다. <위장, 개입, 동화, 2016>에서는 스튜디오의 맞은편에 위치한 텃밭과의 경계에 또 다른 작은 텃밭을 기생하듯 만들어 놓음으로써 경계 너머의 풍경과 자신이 속한 풍경이 '농사'라는 실질적 행위가 가능한 기능적 형태 안에서 동화된다. 그리고 <세 나무가 함께 사는 방법, 2016>에서는 서로 다른 서식환경을 하나로 묶어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의 구조이자 동시에 차별화된 환경으로서의 물리적 구조체를 구축하며, 주변으로부터 수집된 오브제를 재활용하여 하나의 생태 환경을 임시적으로 구축하기도 한다(재활용 조경, 2016). 앞에서 언급한 작업 역시 (Happy Fetch, 다람쥐 계단, 신선한 먹이주기, 다생산 카트) 모두 기능을 바탕으로 사용자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과장 또는 축소된 형태의 기능적 구조물로 장소성을 드러내며, 그것은 시각적 형태로 치환된 관계와 장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 기능, 관계

황문정의 작업에서 개인 간의 관계 양상에 의해 정의되는 장소는 동시대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에 의해 규정된 장소와는 전혀 다른 차원과 맥락으로 이해된다. 간혹 그것은 개인의 일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들을 포착하여 하찮아진 것들을 기록하거나 유실된 것들을 회복하는 행위의 과정에서 드러나곤 한다. 또한 인간 행위와 경험의 바탕이 되는 공간이 가진 장소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양태를 포착하여 그것의 한 귀퉁이를 잘라내고, 그것을 극적으로 확장, 변형시킨 기능적 형식을 통해 삶의 방식에 대한 대안적 사고를 작동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그 양상을 기능적 형태로 구현한 장치는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관계를 실제로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작가는 오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장소를 구성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계의 구조와 질서를 파악하고 기능의 형태로 시각화함으로써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물, 더 나아가 사물과 사물의 관계 등 그 장소를 규정하는 관계의 의미망을 새롭게 직조, 갱신해낸다.

*

김성우는 부산비엔날레(2010)와 서울의 공간사옥에 위치했던 공간화랑(2009-2011) 등을 거쳤으며, 영국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큐레이팅학을 전공했다. 2015년 6월부터 아마도예술공간의 책임큐레이터로 재직하고 있으며, 예술의 효과적인 공유와 전달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책'이라는 매체에 주목한 <PLATFORM b>(아마도예술공간, 2015), 미시사를 통해 공간과 장소, 그리고 지역적 이슈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현재적 가치를 새롭게 진단하고자 한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아마도예술공간, 2016) 등을 기획한 바 있다. 대안적 지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시대 미술의 가능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는 사유하는 존재인 작가 개개인의 시선을 통해 사유의 범위를 확장해보고자 시리즈 형식의 개인전을 기획 중이다.

across from the studio, a landscape beyond the boundary is assimilated in the form of functions, which are capable of a real act, 'farming'. And in *How three tress live together* (2016), the artist establishes a common structure in which different inhabited environments support each other, creates a physical structure as a distinguished environment and collects and recycles surrounding objects to establishes a temporary ecological environment (*Recycling & landscaping*, 2016). Above mentioned works (*Happy Fetch*, *Squirrel Stairs*, *Feeding fresh food*, *Multi-production Cart*), which are all based on functions, newly define a relation among users and present placeness with exaggerated or diminished forms of functional structures, which are considered visually replaced relations and places.

Place, Function, Relation

In HWANG Moonjung's works, a place defined by a relation among individuals and a place defined by rational and economic thoughts are understood in a different context. Sometimes, this grasps things that are put on the fringe of individual's daily life and records trivial things or recover things that are swept away. This is revealed in such process. In addition, by capturing different aspects of life that can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a space based on a human act and experience, she cuts a part of it and dramatically expands and transforms it. By doing so, alternative thoughts on life styles can be activated. What is more, an instrument that realized the life styles into functional forms can establish a new relation. As such, the artist grasps various and multilayered structures and orders that are elaborately connected and constitute a place and visualizes them in the form of functions. By doing so, the artist establishes and renew semantic networks such as individual and individual, individual and group, individual and objects, objects and objects, which all define a place.

*

KIM Sung woo worked in Busan Biennale and KongKan Gallery, once located in Seoul (2009-2011) and major in Curating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He has been serving as chief curator at Amado Art Space since June, 2015. He designed *PLATFORM b*. (Amado Art Space, 2015), a platform that focuses on 'book' for effective sharing and delivery of art. In addition, he planned *A space owned by none* (Amado Art Space, 2015), an exhibition that looks into space, place and regional issues through Microhistory and newly diagnosed modern values. He contemplates over the potentials and methodology of contemporary art, which can play a role as an alternative knowledge and plans a series of solo exhibitions to expand the scope of private thoughts since the end of 2016.



AIR SHOP : 식물 마스크 시리즈, AIR SHOP : Plant Mask Project, dimensions variable, mixed media, 2017

전반적인 작품 설명 및 제작과정에 관해 설명해 달라.

자신이 생각하는 대표 작업(또는 전시)은 무엇이고 이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물며 진행한 작업에 관해 설명해 달라.

나는 장소를 구성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계의 구조와 질서를 파악하고 이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물, 더 나아가 사물과 사물의 관계 등 그 장소를 규정하는 관계의 의미망을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이다. 다양한 서사에 기반한 재료의 물성과 구도, 대상을 재해석하는 과정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프로젝트가 작업의 주를 이룬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석사과정을 하러 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작업을 시작했으며, 특정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새로운 재료를 탐구하고 있다. 나는 한 가지 재료에 얽매어 작업을 진행하기 보다 매번 새로운 매체와 재료를 탐구하고 작업에 적용하는 것을 즐긴다. 보통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크게 리서치, 재료연구, 스케치, 제작 총 4가지 단계를 거친다.

현재 내가 생각하는 대표작업은 〈재활용 조경〉이다. 2016년 국립고양레지던시에 머무르면서 모았던 주변 공사장 폐품을 식물이 살 수 있는 용기로 개조하였고, 이러한 실험의 과정을 오픈스튜디오 때 재구성하여 설치물로 선보였다. 〈재활용 조경〉은 내가 작업하면서 주로 하는 행위들이 집약된 작업이기에 대표작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주변 생활반경 안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찾고, 주변의 잉여물을 채집하고, 상황에 동화되는 혹은 이질적인 조형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결과물의 특성은 매우 ephemeral(단명하는)하여 후에는 사진으로만 남게 된다. 방금 언급한 ‘ephemeral’이 내 작업을 표현하는 핵심단어이다.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무르던 2017년 초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시간이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산책하러 나가기 꺼려졌었고, 그 대부분 시간을 실내 스튜디오에서 보내게 되었다. 고등어와 같이 미세먼지의 주원인 진단에 대한 오류들과 의구심이 드는 대응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이 부조리한 상황을 동시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재미있는 이벤트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한 각종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하는 작업 〈AIR SHOP: 식물 마스크 시리즈〉를

작업의 영감, 계기, 에피소드에 관하여.

예술,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에 대하여.

앞으로의 작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진행했다. 〈AIR SHOP: 식물 마스크 시리즈〉는 대기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소비사회의 부조리한 상황에 반영해 영상, 설치, 판매행위로 구성된 작업이다.

인천아트플랫폼 야외에 〈사이 넘어 사이_홍예문〉작품도 설치했는데, 〈사이 넘어 사이〉시리즈는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글래스고 센트럴 역 준공 과정에서 사라진 빈민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공의 유적에서 시작하였다.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한 기사와 책의 내용을 짜깁기 한 스크립트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가공의 벽 뒤에 작은 소리로 재생되는 작업이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재구성하여 설치한 〈사이 넘어 사이_홍예문〉은 홍예문 주변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가공한 가상의 이야기를 사운드로 제작한 작업이다.

미카 로튼버그 (Mika Rottenberg)라는 이스라엘 작가의 작업을 좋아한다. 그녀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와 노동 현실, 생산품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안의 내러티브를 영화적, 조각적 기법으로 화면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카의 작업은 다양한 공산품, 제품, 흔한 노동자의 모습이 담겨 있으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매우 기이하고 공상적이다. 이런 점들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작업 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예전 작업은 장소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은 범람하고 있는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찢러보기식 상품이 출하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품들이 해프닝처럼 사라진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기이한 상품 시리즈’는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실현하지 못했었다. 앞서 언급한 〈AIR SHOP: 식물 마스크 시리즈〉는 나의 이런 고민들을 담고 있다.

나는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하지만 마무리 단계가 되면 언제나 작업은 시작단계보다 무거워지고 이를 보는 관객도 사뭇 진지한 태도로 작업을 관람하려 한다. 내 작업은 진지해지면 재미가 없어진다. 관객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나의 눈을 통해 한 번 재미있게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 마치 재치 있는 시 한 편을 읽듯이 말이다.

미래의 작업계획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워낙 충동적으로 작업할 때가 많아서 그 때가면 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걸 응용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다만 작업의 결이 확실해지고 살이 덧붙여져서, ‘나의 작업’이라는 정체성이 좀 더 확고해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재미있게 잘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도 실현하고 싶은 것을 망설임 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작업을 지켜봐 온 사람들이 내가 여전히 유쾌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



사이넵어사이_Y동, Beyond between Beyond_Ydong, dimensions variable, brick tiles,fake plants,cement,wood,paint, 2017



사이넵어사이_홍예문, Beyond between Beyond_Hongyemun, dimensions variable, brick tiles,fake plants,cement,wood,paint, 2017



재활용 조경, Recycled Gardening, dimensions variable, objects,plants,tape,wood, 2016



위장, 개입, 동화, Camouflage, Intervention, Assimilation, 182×80×248cm, vegetable,wood,Soil,2016



세 나무가 함께 사는 방법, The way three trees live together, dimensions variable, wood,pine tree,soil, 2016



방구석, The Flat room, 400×80×210cm, wood,floor paper,wall paper,light,fan,bed,boxes, 2016



손가락 휘트니스, Finger Fitness, 120×40×120cm, tools, fluorescent light, wood, 2016



다생산카트, Multi Production Cart, 122×72×185, wood, paint, wheels, fish tank, solar panel, motors, LED, 2015



해피페치, Happy Fetch, dimensions variable, mixed media, 2015

황문정

mooniq9787@gmail.com

학력

글래스고 예술학교 Masters of Letters Fine Art Practice 졸업,
글래스고, 영국, 2014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서울, 2012

개인전

〈방구석〉, 사이아트큐브갤러리, 서울, 2016
〈개입: 짧은 마주침들〉, 갤러리와밀리온, 하우스 포 언 아트 러버,
글래스고, 영국, 2015

주요 그룹전

〈시간여행자의 시계〉,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7
〈2017 IAP 단편 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Outskirts: 경계의 외부자들〉, 스페이스 빔, 인천, 2016
〈을지로 휘트니스〉, 청계상가, 서울, 2016
〈HUMAN : SCALE〉, 웨스트버리 아트센터, 밀턴케인스, 영국, 2015
〈Discovering the Island〉, Fondazione Mandralisca, 체팔루, 이탈리아, 2014
〈Information Exhibition〉, 페이슬리박물관, 글래스고, 영국, 2014
〈Iota Gallery M.Litt Exhibition〉, 이오타갤러리, 글래스고, 영국, 2014
〈2011/2014 M.Litt Sculpture Exhibition〉, 위스키본드, 글래스고, 영국, 2013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국립고양레지던시, 고양, 2016
졸업생 레지던시_웨스트버리 아트센터, 밀턴케인스, 영국, 2015
하우스 포 언 아트 러버 에어본 레지던시, 글래스고, 영국, 2015

HWANG Moonjung
mooniq9787@gmail.com

Education

M.Litt in Fine Art, Glasgow School of Art, Glasgow, UK, 2014
B.F.A. in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2

Solo Exhibitions

〈The flat room〉, Cyart Cube Gallery, Seoul, 2016
〈Intervention: Brief Encounters〉, Gallery Pavilion, House for an Art Lover,
Glasgow, UK, 2015

Selected Group Exhibitions

〈The Clock of Time Traveler〉,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2017
〈2017 IAP Short Storie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7
〈Outskirts: Outsiders of a boundary〉, Space Beam, Incheon, 2016
〈Euljiro Fitness〉, Cheonggye building, Seoul, 2016
〈HUMAN : SCALE〉, Westbury Arts Centre, Milton Keynes, UK, 2015
〈Discovering the Island〉, Fondazione Mandralisca, Cefalu, Italy, 2014
〈Information Exhibition〉, Paisley Museum, Glasgow, UK, 2014
〈Iota Gallery M.Litt Exhibition〉, Iota Gallery, Glasgow, UK, 2014
〈2011/2014 M.Litt Sculpture Exhibition〉, The Whisky Bond, Glasgow, UK, 2013

Residencie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7
MMCA Residency Goyang, Goyang, 2016
Graduate Residency_ Westbury Arts Centre, Milton Keynes, UK, 2015
House for an Art Lover AIRborne Residency, Glasgow, UK, 2015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생명’과 ‘몸’은 나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재료는 나의 작업 과정 전체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요소이다. 나는 조각 작업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물 건축에 사용하는 발포 폼(expanding foam)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이다. 나는 만들고자 하는 형태를 종이에 드로잉 한 후 이것을 패브릭(fabric)에 전사한다. 그 형태를 깨맨 후 안에 발포 폼을 넣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낸다. 이것이 내가 종종 내 작업을 확장된 드로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다. 나는 8년 전부터 완벽하고 매끄러운 표면의 조각 작업을 만들기 위해 발포 폼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작품 ‘jacob’과 같이 입을 수 있는 패브릭과 부드러운 형태의 조각으로 만들었었다. 발포 폼을 통해 나는 작품의 부드러운 표현뿐만 아니라 발포 폼이 패브릭을 통과하며 의도치 않게 얻어지는 많은 형상과 통제 불가능하게 자라난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발포 폼은 습도와 계절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매번 다른 방식의 결과물을 낸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료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폼이 만들어내는 우연성을 나의 작업 일부로 받아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효과와 우연성을 이용하거나 재료를 가지고 노는 방식으로 경험적 기술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발포 폼의 재료적 특징은 일종의 살아있는 물질임과 동시에 내가 실험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가장 알맞은 재료라고 생각한다.

최근 작업인 ‘Henri & Catherine’(2016) 이라고 말하고 싶다. 두 조각은 프랑스의 바로크 양식의 성당 안에서 전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작업은 그 성당 건축에 후원한 앙리(Henri de Guise)와 캐서린(Catherine de Clèves)을 조각한 대리석 옆, 성당 내 성가대 자리에 놓였다. 이 작업은 내가 특정한 장소(specific sites), 예를 들어 대상의 재료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역사와 건축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나는 재료 때문에 처음 계획했던 작업 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두 조각의 모양을 똑같은 방법으로 발포 폼을 사용하여 비슷하게 제작했다. 사실 원래는 “흙터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앙리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이 인공적인 신체 조각 중 하나를 자른 후에 재구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각을 자르려 할 때 성당이 너무 추워 표면은 껍질처럼 말라 있었고 조각을 잘랐을 때 속은 덜 말라 있었다. 자른 후에 폼이 용암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은 마치

(성상의 머리 위에 그려지는) 후광의 모습과 같아서 나는 그 곳에서 그 재료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네에 매달린 모양의 ‘The Duck’s Stress’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이 작품은 4개월간 야외에 설치된 조각 작업으로, 날씨를 비롯한 외부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손상이 되었다. 나는 이 작품을 다시 고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전시를 진행해야겠다고 결정했다. 고치는 과정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와 보스니아의 여러 도시, 그리고 사라예보를 여행하는 동안에 건물의 파사드를 복원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작품은 나의 조각 작업의 변화와 과도기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폼의 연약한 특징은 일종의 의학적인 보수와 구조적인 복원을 유지하는 과정을 끌어냈다. 나는 마치 수술을 하듯 석고 반죽으로 작품을 덧대거나 때우면서 이전의 이야기, 상처, 남겨진 것에 대한 표현으로써 신체와 시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무는 동안 나는 한국의 공원에서 발견한 옥외 운동기구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조각 작업과 드로잉과 프린트 작업을 진행했다. 그중 조각 작품은 길고 확장된 신체가 옥외 운동기구를 본뜬 구조물 안에 일종의 간혀있는 구조를 띤다. 나는 이 기구의 기능과 사용을 변화시키며, 이것이 가진 모호하고 복잡한 특징에 주목했다. 이 작업은 애완전을 훈련하는 기구에 추상적인 ‘신체’의 형태가 놓여 있는 ‘Agilities’라는 최근 조각 작업의 연장 선상에 놓여있다. 나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조각적인 이 옥외 운동기기구에 매료되었는데, 신체를 대하는 접근 방식이 유럽과는 다르다고 느꼈다. 이 기구들은 사람들을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너무 정교해서 마치 때때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굉장히 미래적이고 첨단기술이 집약된 한국 브랜드의 안마의자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 이 안마의자에 사용된 기술과 의자의 세련됨, 그리고 효과와 기능 사이의 터무니없이 큰 간극이 너무 과하게 느껴졌고, (그렇지만 나는 안마의자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는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어 가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조각 작업에서 화려함과 반짝거리는 구조물의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매력적인 물건’에서 착안하였는데 한국의 일상 생활 속 음식, 나무, 솜사탕 그리고 마스코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깊숙이 관련되어있다. 이러한 매력은 안정적인 세계를 만들어 유지하기도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 내게 흥미롭게 다가왔다.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무는 동안 다음 작업(특히, 애니메이션 드로잉 작업의 사운드로)에 사용하기 위해 나는 많은 전자 소음들을 녹음하였다. 또한 우도에서 발견한 ‘팝콘 모래’와 같은 물건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직접 혹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음 작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작업의 영감, 계기, 에피소드에 관하여.

나는 주변의 많은 것들과 사람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로부터 작업의 영감을 얻는다. 다소 두서 없지만, 짧게나마 작업에 영감을 준 작가 Berlinde de Bruyckere, Isa Genzken, Tea jorjadze, Lynda Benglis Lutz and Guggisberg, Mika Rottenberg, Silvia Bächli, Philip Guston, Dieter Roth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나는 여행이나 일상생활, 이를 테면 어떤 오브젝트, 음식, 자연, 사람 등은 물론, 영화나 무용에서도 영감을 얻곤 한다.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주로 나에게 장소와 시간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드로잉 애니메이션, 사진과 새로운 조각 작업 ‘shortened agilities’ 시리즈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잠시 작업을 중단했다. 또한 설치 작업이나 큰 조각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기다리는 중이다.

예술,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에 대하여.

어떤 메시지나 특정한 의미 이상으로 나는 관람객에게 삶의 시각, 시간과 물질, 그리고 물리적 경험을 제안하고 싶다. 나의 조각은 종종 마치 사람과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작업 중에 매달려있는 조각 연작 ‘Thrums’는 항상 높은 곳에 매달려 관객들과 마주하도록 전시하였다. 또한 내가 작업에 제목을 부여할 때,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며, 드러내는 것 대신에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려고 한다. 나의 작업이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식물들을 참고하지만 무엇도 될 수 없는 동시에 관념과 형태 사이에 머물러있는 이유이다.

앞으로의 작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나의 새로운 작업은 대부분 이전 작업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작업으로 탄생해서 나올지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나는 내 작업이 끊임 없이 그리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료(예를 들면 세라믹)의 실험도 해보고 싶다.

Please tell us about your works, including your creation process.

What do you think your representative work or exhibition is? Why do you think so?

The living and the body are central themes in my work, and the material is the element around which I build up my whole practice. To realize my sculptures, I use more and more different materials but expanding foam, usually used in buildings construction, is one of my preferred material. I draw a shape on paper that I copy on fabric. Then I sew the fabric to obtain a cast in which I inject expanding foam. That’s why I often describe my sculptures as inflated drawings. I began to use expanding foam eight years ago because I wanted to get a perfect and smooth surface for my sculptures. Before, my wearable elements, like the jacos, were made of fabric and soft chips of foam. With expanding foam, I obtained the smoothness but also many unexpected shapes and incontrollable outgrowths, the foam getting through the fabric. Depending on dampness, seasons and temperatures, the foam doesn’t react the same way and doesn’t produce the same effects. With time, I developed this empirical technique ; I learned to tame this material and at the same time to accept these foam accidents as a part of my work, using and playing with the unpredictable effects and the coincidences. Moreover, these features make the expanding foam a kind of living material, so the perfect material for my experiments and the fields I want to explore.

I think about two recent works *Henri & Catherine* (2016). Two sculptures realized for an exhibition in a french baroque chapel. They were standing in the choir, next to the marble sculptures representing Henri de Guise and Catherine de Clèves who sponsored the chapel. This couple of sculptures is a good example of how I like to be responsive to specific sites, particularly its history and architecture as well as to the material. I particularly enjoy when I have to give up an initial project because the material opened other perspectives. For *Henri & Catherine*, I made two similar casts and inflated them the same way with expanding foam. My plan was to cut horizontally one of these artificial body and to reconstruct it – this idea was connected to the story of Henri de Guise who was called “The Scar”, but the chapel was so freezing that when I begun to cut the sculpture, the surface was dry, like a crust, but not the inside. Then the foam flowed, like lava, making a halo shape. So I decided to stop there and let the material do. *The Duck’s Stress*. Hung as a swing, this sculpture was exhibited for four months in an outdoor site of floating gardens in France. There it was very damaged, a bit by the weather, however, mainly by the public. I decided to fix it and to show its revival version a few months later in another show. The fixing process was inspired by the Acropolis in Athens as well as some repaired facades of buildings discovered during trips to Sarajevo and other cities in Bosnia. The *Duck’s Stress* is quite representative of the mutation and the transitory condition of my sculptures. The fragility of the foam led me to a process of maintenance between medical cares and structural restoration. Like a surgeon, I repair, patch and extend my sculptures with plasters, gesturing at a visible past, a story, scars, leftovers, bringing up questions of living and time.

Please tell us about your works made while staying at IAP.

During my residency at IAP, I began a new series of sculptures, drawings and prints inspired by the fitness machines that I discovered in Korean public parks. Long and extended bodies are kind of trapped into colorful wooden and metal structures. I played with the ambiguity and the complexity of these equipment, diverting their functions and uses. These works are in continuity with my recent sculptures entitled *Agilities* where abstract bodies sprawl on dog jumps. I was fascinated by these fields of machines which are sculptures by themselves. They reveal a different approach of body from the one we have in Europe. Moreover, they are made to take care of bodies but they are so elaborated that they sometimes look like malevolent tools. I also had the opportunity to try an incredible and futuristic high-tech Korean massage armchair. The deployment of so much technology to do massages,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sophistication and the effects and functions of these devices sound a bit excessive and absurd to me (even if I really enjoyed my time on the massage chair !); It embodies the unnecessary mechanization of everything. Furthermore, the colorful and glittered structures of the sculptures – which make them friendly at the first glance – come from the idea of saturation and the omnipresence of cute things in Korean everyday-life (food, trees, cotton candy, mascots...). This cuteness interests me in the sense that it changes our perception of reality and creates a reassuring parallel world. During my stay, I recorded a lot of electronic noises that I would like to use in future works, especially for the sound of my animated drawings. I also collected objects and elements, like this « pop corn sand » found in Udo island. All these materials are going to feed my work in the next months, directly and also unconsciously.

About inspirations, motivations and anecdotes.

A lot of things and persons inspire my work. Many artists also. To make a short and disordered list : Berlinde de Bruyckere, Isa Genzken, Thea Djordjadze, Lynda Benglis Lutz and Guggisberg, Mika Rottenberg, Silvia Bächli, Philip Guston, Dieter Roth are visual artists whose I appreciate the work a lot. I am also inspired by movies and dance performances. And of course, trips as well as everyday-life : objects, food, nature, people... I have many ideas of projects in mind. Mainly space and time are the required elements to realize them. Particularly my animated drawings/photos and a new series of sculptures entitled *shortened agilities* are now in suspension because of a lack of time. Otherwise, for some installations or big sculptures, I am waiting for the right spaces.

About art and communicating with audiences.

More than a message or a specific meaning, I want to propose a perception of the living, time and material to the audience, as well as a physical experience. My sculptures often have approximately the same dimensions as human beings, and for example, the *thrums*, my series of suspended sculptures, are always hung from a height which allows the audience to face them. Moreover, when I give a title to an artwork, I take care to not be very explicit in order to leave open the fields of interpretation. I prefer to suggest instead of representing. That's also why my work is between abstraction and figuration, referring at the same time to humans, animals and vegetables without being any of them.

Please tell us about your future plans and working direction.

As my new works are most of the time based on the previous ones, it's difficult to imagine what will be my work in several years. But I wish that it will evolve constantly and in unexpected directions. I also want to experiment different kinds of materials, like ceramic for example.



A jaco ?, 7'44, video, color, sound, 4 : 3, 2003



The Duck's Stress, 190×190×135cm, fabric,expanding foam,epoxy resin,eyelets,steel cables,swing, 2016
Exhibition view of *Tropical Waterworld*, outdoor solo show, Art, Cities and Landscape, the Hortillonnages of Amiens, France – production Maison de la Culture d'Amiens, 2016



The Duck's Stress (Revival), 190×190×135cm, fabric,expanding foam,coating,threaded rods,bolts,eyelets,steel cables,painted swing, 2016-2017
Exhibition view of *Tape Ain't Gonna Fix It*, duo show, Basement, Vienna, Austria, 2017



Henri & Catherine, 150×70×50cm, 250×80×80cm, fabric, expanding foam, plastic basins, 2016
Exhibition view of *Hullabaloo*, solo show, Chapelle du Collège des Jésuites, Eu, France, 2016



Shortened Agility #4, 30×27×7cm, expanding foam, cooper, paint, wood, hardening modelling cla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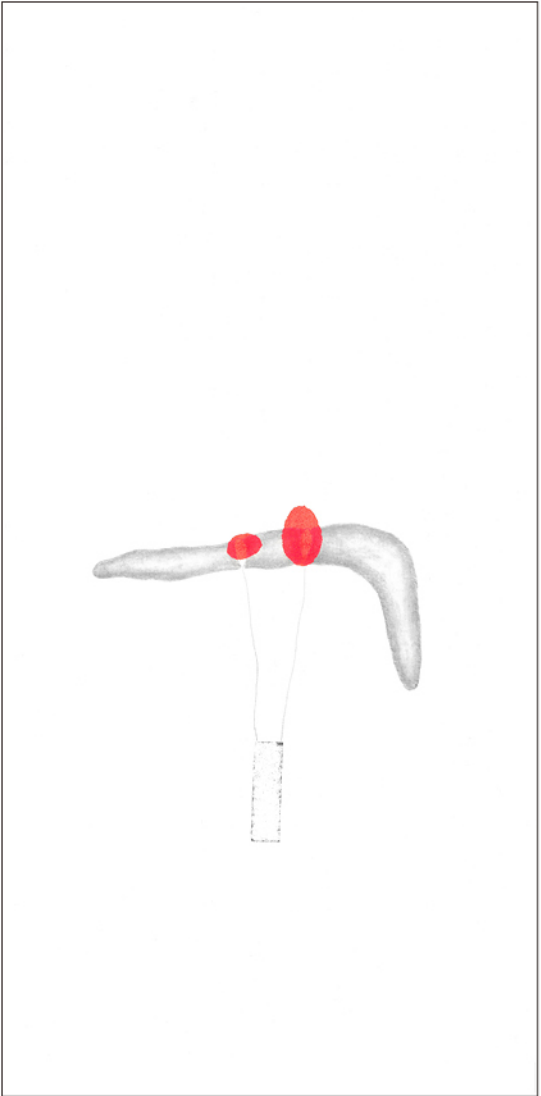
Shortened Agility #5, 41×23×14cm, fabric, expanding foam, cooper, coating, hardening modelling clay, golden thread, drinking straw, paint, polyester fiber, metal rod, 2017



Agility #4, 33×12×15cm, fabric,expanding foam,wooden sticks,glue,brass,modelling clay, 2016



Big Shortened Agility, 170×190×90cm(approx.), fabric,expanding foam,cooper, 2017



#21 (Gym Tonic), 28.5×20.8cm, ink,pencil & paint on paper, 2017

<div><div></div> 델핀 푸이에</div> <div>delphinepouille@gmail.com</div> <div>www.delphinepouille.com</div>

학력
광테옹-소르본 파리 제 1대학 네셔널 디플로마(Agrégation), 파리, 프랑스, 2005
렌 제 2대학교 석사 졸업, 오프 브르타뉴, 프랑스, 2003
렌느 예술대학 디프로마 학사 졸업, 렌 프랑스, 2002

주요 개인전
‘Tropical Waterworld, Art, Cities & Landscape’, 아미앵 습지공원, 프랑스, 2016
‘Hullabaloo’, 예수회 대학 성당, 센마리팀(Eu), 프랑스, 2016
‘Peuplade’, 제 9회 상시 호리즌 자연예술, 프랑스, 2015
‘The Rainis a Mistake’, Z.A.N 갤러리, 48°53’60’’N/2°23’59’’E, 2015
‘Les Convalescents’, 오프 빠베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3
‘Fluffy Flavours’, 텍스트레벨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1
‘Le Hublot’, 이브리쉬르센, 프랑스, 2011
‘Cagoules et Bouées’, B 갤러리, 브뤼셀, 벨기에, 2008

주요 그룹전
‘2017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Tape Ain’t Gonna Fix It’, 베이스먼트, 비엔나, 오스트리아, 2017
‘IAP 단편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Fail Better’, OFR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7
Arts Protects by Yvon Lambert, EDF 재단, 파리, 프랑스, 2016
‘Generosity’, XPO. 스튜디오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6
‘W/W’, 메종 드 데자르 로사 보누르, 세빌리 라르, 프랑스, 2016
‘Sculpere’, 폴라리스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6
‘La Chapelle Fifteen’, 칼페리엔 성당, 마옌,프랑스, 2015
‘Sans tambour’, ni trompette (chap.II), Artothèque de Caen, 프랑스, 2015
‘Corpspro C’, 루이스 애닉 두캐 컬렉션, 제보스 재단, 베즐레, 프랑스, 2015
‘Poetry of Bodies’, 와줄루나탈 미술협회 갤러리, 더반, 남아프리카공화국, 2015
‘Protocol’, 키메라 프로젝트, 부다페스트, 헝가리, 2015
‘La Déconstruction des schèmes’, 레 살레종, 로맹빌, 프랑스, 2014
‘Decay’, 아트플라CC, 티하니, 헝가리, 2014
‘Minimenta’, 파리, 프랑스, 2014

‘Going on a trip’, 타이페이 현대 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2014
‘Teken’, 장 클레 갤러리, 겐트, 벨기에, 2013
‘Art Protects, 4th edition’, 이본 램버트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3
‘Biomorphisme et biomimétisme’, 에땅 두니에, 님, 프랑스, 2013
‘Drawing Now’, 컨템포러리 드로잉 아트 페어, 라루셀 루브르, 파리, 프랑스, 2013
제 6회 부르쥬 현대 미술 비엔날레, 부르쥬, 프랑스, 2012
‘Îles au trésor’, 라 페로나리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2
‘Nuit Blanche’, 마옌느, 프랑스, 2011
‘Éclats’, 라 페로나리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1
‘Les Infiltrés’, La Graineterie, 우일, 프랑스, 2010
‘Bringingprivacy out, 루프 오프, 비디오 아트 페스티벌, 홈세션, 바르셀로나, 스페인 2010
Singulier...multiples, 라 페로나리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9
Hauts en couleur, 라 페로나리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9
‘Paysage humain’, 레 유르바니스테, 푸제르, 프랑스, 2007

퍼포먼스 및 행사
‘Rolling-up Parade’, 순수예술 아카데미, 아를롱, 벨기에, 2014
‘Artificial Creatures’, 룩셈부르크 현대미술관, 룩셈부르크시, 룩셈부르크, 2013
‘Museums Night’, 카지노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현대미술 및 역사박물관, 룩셈부르크시, 룩셈부르크, 2009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예수회 대학 채플, 센마리팀(Eu), 프랑스, 2016
타이페이 아트 빌리지 레지던시, 타이페이, 대만, 2012
홈세션, 바르셀로나, 스페인, 2008

<div><div></div> Delphine POUILLÉ</div> <div>delphinepouille@gmail.com</div> <div>www.delphinepouille.com</div>

Education
National Diploma(Agrégation) in Visual Arts, University Paris I – Panthéon - La Sorbonne, Paris, France, 2005
MFA in Visual Art, university of rennes 2, Haute Bretagne, France, 2003
BFA in Visual Art, Fine Art School of Rennes, Fine Arts School of Rennes, France, 2002

Selected Solo Exhibitions
‘Tropical Waterworld, Art, Cities&Landscape’, Les Hortillonnages d’Amiens, France, 2016
‘Hullabaloo’, Chapelle du Collège des Jésuites, France, 2016
‘Peuplade’, Horizons #9, « Arts Nature » en Sancy[outdoor], France, 2015
‘The Rainis a Mistake’, Z.A.N gallery, 48°53’60’’N/2°23’59’’E, 2015
‘Les Convalescents’, Haut Pavé gallery, Paris, France, 2013
‘duffy Flavours’ NextLevelgallery, Paris, France, 2011
‘Le Hublot’, Ivry-sur-Seine, France, 2011
‘Cagoules et Bouée’, B-Gallery, Brussels, Belgium, 2008

Selected Group Exhibitions
‘Platform Artists 2017’, Incheon Art Platform, 2017
‘Tape Ain’t Gonna Fix It’, with Sophie Dvo ák, basement, Vienna, Austria, 2017
‘IAP Short Stories’, Incheon Art Platform, 2017
‘Fail Better’, OFR gallery, Paris, France, 2017
‘Arts Protects’ by Yvon Lambert, EDF Foundation, Paris, France, 2016
‘Generosity’, XPO. Studio gallery, Paris, France, 2016
‘W/W’, Maison des Arts Rosa Bonheur, Chevilly Larue, France, 2016
‘Sculpere’, Polaris gallery, Paris, France, 2016
‘La Chapelle Fifteen’, Chapelle des Calvairiennes, Mayenne, France, 2015
‘Sans tambour’, ni trompette (chap.II), Artothèque de Caen, France, 2015
‘CorpsproC’, Collection Louis et Annick Doucet, Zervos Foundation, Vézelay, France, 2015
‘Poetry of Bodies’, KZNSA Gallery, Kwazulu Natal Society of Arts, Durban, South Africa, 2015
‘Protocol’, Chimera Project, Budapest, Hungary, 2015
‘La Déconstruction des schemes’, Les Salaisons, Romainville, France, 2014
‘Decay’, ArtPlace, Tihany, Hungary, 2014
‘Minimenta’, Paris, France, 2014
‘Going on a trip’, MOCA Taipei,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Taipei, Taiwan, 2014
‘Teken’, Jan Colle gallery, Ghent, Belgium, 2013
‘Art Protects’, 4th edition, Yvon Lambert gallery, Paris, France, 2013
‘Biomorphisme et biomimétisme’, Étant donné, Nîmes, France, 2013
‘Drawing Now’, Contemporary Drawing Art Fair, with La Ferronnerie gallery, Carrousel du Louvre, Paris, France, 2013
6th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of Bourges, Bourges, France, 2012
‘Îles au trésor’, La Ferronneriegallery, Paris, France, 2012
‘Nuit Blanche’, Mayenne, France, 2011
‘Éclats’, La Ferronneriegallery, Paris, France, 2011
‘Les Infiltrés’, La Graineterie, Houilles, France, 2010
‘Bringingprivacy out, LOOP Off, Video Art Festival, Homesession, Barcelona, Spain, 2010
‘Singulier...multiples’, La Ferronneriegallery, Paris, France, 2009
‘Hauts en couleur’, La Ferronneriegallery, Paris, France, 2009
‘Paysage humain’, Les Urbanistesgallery, Fougères, France, 2007

Performances and Events
Rolling-up Parade, Academy of Fine Arts, Arlon, Belgium, 2014
Artificial Creatures, MUDAM, Museumof Modern Art Grand-Duc Jean, Luxembourg, 2013
Museums Night, Casino Luxembourg, MUDAM, MHVL, Luxembourg, 2009

Residencie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7
Chapelle du Collège des Jésuites, France, 2016
AIR Taipei, Taipei Artist Village, Taiwan, 2012
Homesession, Barcelona, Spain, 2008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크리틱 위클리

Incheon Art Platform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2017 Platform Critique

Weekly

정혜정
JUNG Haejung

황경현
HWANG Gyunghyun

황문정
HWANG Moonjung

델핀 푸이에
Delphine POUILLE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Incheon Art Platform
3, Jemullyang-ro 218beon-gil, Jung-gu,
Inchoen 22314, South Korea

T. +82.32.760.1000
F. +82.32.760.1010

H. www.inartplatform.kr
F. www.facebook.com/Inartplatform
I. www.instagram.com/Incheonartplatform

*5